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 학교에 대한 속의

일 시 2025년 9월 6일(토) 09:00~15:00
장 소 청주 OSCO 중회의실 203-204호
YouTube(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프로그램

1부 영유아교육과정의 존재인식론과 국가책임제교육 숙의하기			사회 류미향 교수(동아대학교)
09:00~09:10	개회사	개회사	오채선 회장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09:10~09:30	환영사/ 축사	- 최교진 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이정옥 전 장관(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전 여성가족부장관) - 조용남 원장(한국보육진흥원)	
09:30~10:10	기조강연	어린이의 삶,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고병헌 교수 (성공회대학교)
10:10~10:50	초청강연	오래된 미래학교: '초등전일제가 답이다'	장윤숙 저자 (전 초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10:50~11:30	주제강연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국가책임제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숙의하기	임부연 교수 (부산대학교)
11:30~11:40		휴 식	
2부 성찰과 변혁: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숙의하기			좌장 이부미 교수(경기대학교)
11:40~12:20	종합토론	토론자1) 온정덕 교수(경인교육대학교/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전문위원) 토론자2)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전 국회의원/노키즈존 한국사회 공동저자) 토론자3)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토론자4) 이진희 교수(계명대학교)	
12:20~14:00		점심(자유 점심시간)	
3부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사회 이연선 교수(부산대학교)
14:00~14:20		연령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 세종시교육청 혼합연령학급 정책연구	김은정 박사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14:20~14:40		[Young Scholar session 1] 존재감각의 과정으로서 '만들기': 팀 잉골드의 '만들기(making)'개념에 대한 교육적 전유	서정은 박사 (서울대학교)
14:40~15:00		[Young Scholar session 2]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공동-생성의 교실 아카이브	최고은 박사 (부산대학교)

목차

1부 영유아교육과정의 존재인식론과 국가책임제교육 숙의하기

【환영사/축사】

최교진 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이정옥 전 장관(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용남 원장(한국보육진흥원)

04

06

【기조강연】

어린이의 삶,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고병헌 교수(성공회대학교)

07

【초청강연】

오래된 미래학교: '초등전일제가 답이다'

장윤숙 저자(전 초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19

【주제강연】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국가책임제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숙의하기

임부연 교수(부산대학교)

39

2부 성찰과 변혁: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숙의하기

【종합토론】

토론 I 초등전일제에 대한 토론

온정덕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전문위원)

63

토론 II 영아의 배움,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기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전 국회의원/ 노키즈존 한국사회 공동저자)

69

토론 III 영유아교육정책을 국가 교육정책 체계에서 논의:

국가수준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서 출발하자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75

토론 IV 희망으로 함께 부를 행복한 영유아교육의 미래: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이진희 교수(계명대학교)

81

3부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연령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 세종시교육청 혼합연령학급 정책연구

김은정 박사(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91

존재감각의 과정으로서 '만들기':

팀 잉골드의 '만들기(making)'개념에 대한 교육적 전유

서정은 박사(서울대학교)

103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공동-생성의 교실 아카이브

최고은 박사(부산대학교)

117

축사

이정옥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 교수
제8대 여성가족부 장관

오래된 미래! 참으로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미래는 희망차면서도 불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는 단어입니다. 페르낭 브로델은 인간의 생활사는 장기 지속적이며 파도와 같은 표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거기 그 자리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미래라는 단어에서 설레임과 동시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영유아의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신생아를 대하는 설레임만큼 두렵고도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이 조심스러움을 담아 영유아에 대한 존재 인식론적 읽기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레임을 담아 미래학교에 대한 숙의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존재 인식론적으로 읽고 미래학교 차원에서 숙의하는 그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 연차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2024년의 개정 표준 교육과정을 다차원적 차원에서의 읽기와 숙의를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에 대한 초기 사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학자가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해왔습니다. 영유아의 양육, 성숙, 사회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초기 사회화를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하는 현실에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관심 복원과 국가의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 과정에 사회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사회의 복원이 중요한 과제가 된 상태에서 국가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의 영역까지 포섭할 때는 국가에 의한 표준화 과정에서 더 많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구성이 중요해집니다.

교육은 돌봄과 양육이라는 차원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일방성과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 연차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실험 사례를 통해 교육과 학습, 놀이, 돌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돌봄, 양육, 교육에 대한 염려를 모두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 학회 오채선 교수님, 존재 인식론적 차원에서 기초 강연을 해주신 고병헌 교수님,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초청 강연을 해주신 장윤숙 사무처장님, 2024 개정 표준 교육과정에 대해 주제 강연을 담당해주신 임부연 교수님,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제에

대한 숙의를 담당해주신 온정덕 교수님, 장하나 님, 권혜진 교수님, 이진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실험 사례를 제시해 주신 김은정 박사님, 서정은 박사님, 최고은 박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존재 인식론적 차원에서 오래된 미래의 맥락 열기, 국가 책임제에 대한 성찰과 숙의, 교육 개념의 확대, 각 분야에서의 진지한 노력을 한데 모은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 학회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축사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오늘, 뜻깊은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귀한 축사를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오채선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 학교에 대한 숙의’라는 주제로 영유아 교육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책임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영유아들은 단순히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심도깊은 성찰과 새로운 시각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맞닿아 교육 정책 수립과 실천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학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유아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어린이의 삶,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고 병 헌

(성공회대학교 교수)

어린이의 삶,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오늘 내딛는 여러분의 한 걸음이
내일, 우리 교육의 길이 됩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병헌

우리 아이들은 관찰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삶을 위한 대안교육에서는
가르치려는 삶을
보여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토 대학 영장류연구소의 학자들은 어린 침팬지도
어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새끼들은 부모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Science 2001).

인간에게서도 부모의 기본적인 행동, 신념, 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는
어린이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시냅스 경로라는 형태로 ‘아로새겨’ 진다.

인간 무의식적 차원에 프로그램되어버리고 나면
이러한 신념이나 태도는 죽을 때까지 인간을 지배한다,
프로그램을 바꿀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면 말이다.”

신생물학을 이끌어가는 의학자(醫學者) 브루스 H. 립턴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2011년, 두레)

난민 캠프 아이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웃음꽃’

(출처: 가자/AFP 연합뉴스; 〈한겨레〉, 2024년 10월 4일 자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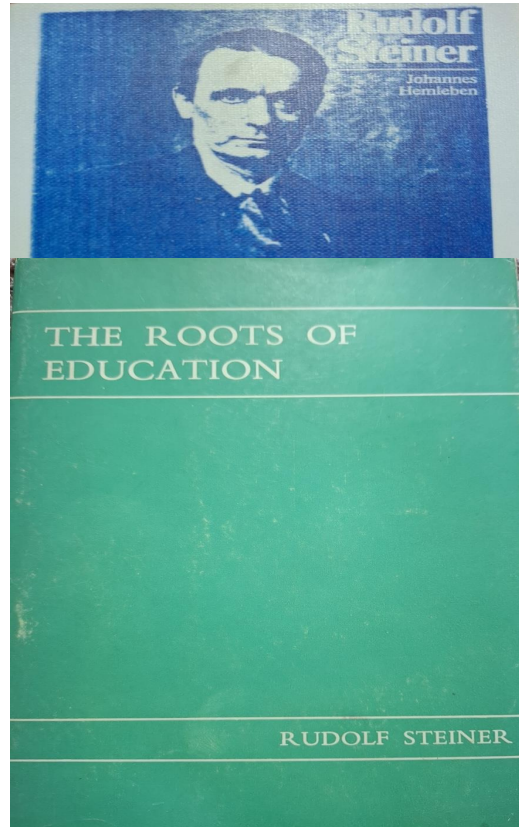
폐허 속에서 피어난 웃음꽃 지난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부라이지(부레이즈)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우산을 같이 쓰며 웃고 있다. 오는 7일로 발발 1주년을 맞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가자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만 4만1천명이 넘고 이 중 어린이만 1만6천명 이상이다. 이스라엘군은 1일 레바논 지상작전 시작을 발표하며 전쟁의 포화는 레바논으로 번지고 있다.
가자/AFP 연합뉴스

폐허 속에서도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아이들이 같은 교사를 담임으로 갖기 때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을 자기 자녀처럼 잘 알게 되며,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해집니다.

9년 동안 한 명의 교사가 담임이기 때문에 전체 학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1학년 담임으로 되돌아 가고, 그래서 아무리 헌신적인 발도르프 교사라도 재직 중에 함께 과정을 밟는 아이들은 단지 4, 5 집단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와 유대감, 그리고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며, 덴마크 학교 또한 9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담임이 한 명입니다.



AI 시대에서 영유아 교육 길 찾기

II

원하는 미래

예측되는 미래

+

삶을 위한 가치(善)

+

실현능력(美)

한국영유아교육과정
(놀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후재난, 양자 컴퓨팅 ... 등
사상 초유의 일로 세계적으로 그 어느 교육 전문가도
우리보다 단 한발짝도 더 먼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未來’ 라고 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의심, 회의 등은
미래교육의 길 찾기 과정에서 필연적 요소입니다!

결국,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교육을 상상하려는 의지와
자신이 걸어보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용기,
이것이 바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요구되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뉴노멀 시대에서의 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고방식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미래 영유아 교육을 열어갈 교사께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관점>

- 1.교사는 홀로 교사일 수 없습니다.
- 2.한계인가, 오류인가를 판단하십시오.
- 3.문제를 낳은 이전 생각이나 삶의 방식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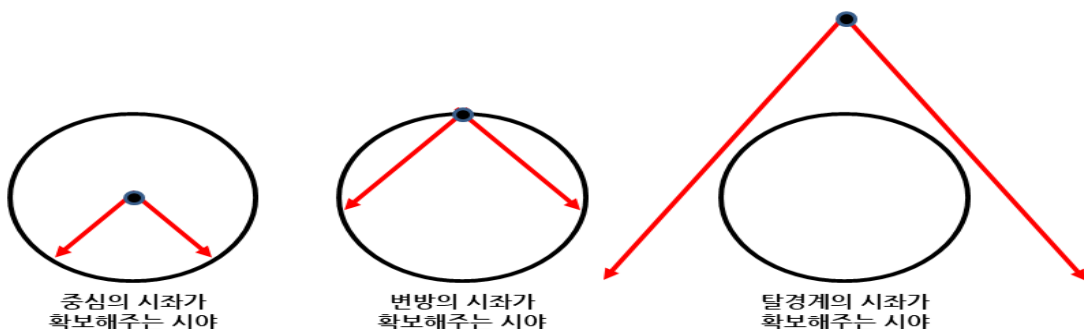
(「새떼」 중에서)

“너무 달라서,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매일처럼 입에 침을 튀기며 싸우고 주먹질하는 우리들도
멀리서 보면 수천수만의 크고 작은 점들이리라, 어쩌면.
누가 옳고 무엇이 바른지도,
누가 잘나고 무엇이 비뚤어졌는지도 구별되지 않는
수천수만 개의 크고 작은 점들이리, 멀리서 보면.”

-신경림.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2025년.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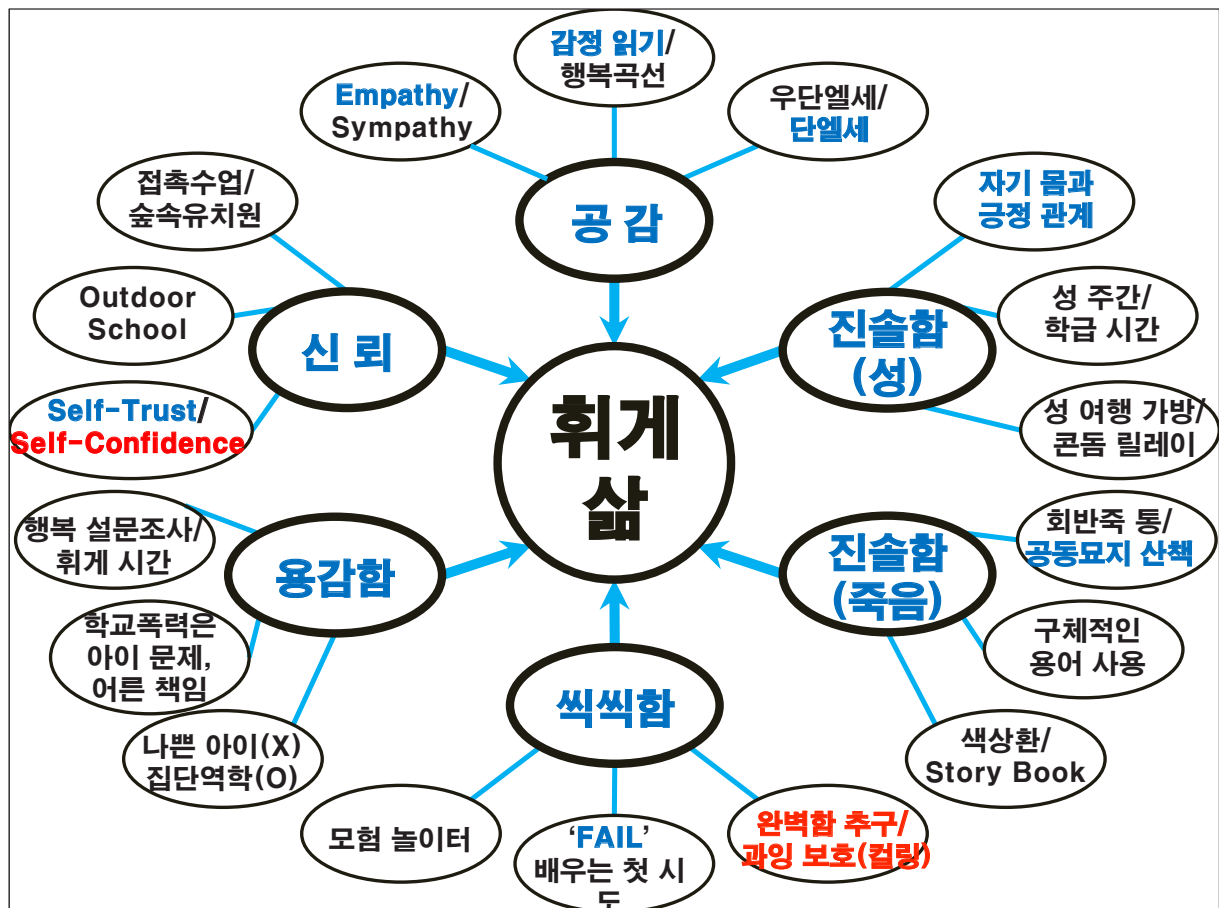
관점 *perspective, point of view*, **시좌** *position of view*(視座)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2019. 오월의봄)



덴마크-지난 40년간 행복지수 세계 최상위

휘게 Hygge



놀이터,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경계 혹은 ‘사이-공간’
그런데 ... 우리 지역(학교)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덴마크엔 ‘모험 놀이터’ (adventure playground)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밖에서 나무판, 망치, 톱, 못을 가지고 목공을 한다. 아이들은 나무로 집도 짓고, 뗏목도 만들며, 뛰든 원하는 것을 만든다. 어른들은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지만, 곧 다시 시도한다.

이런 경험이 중요한 학습 과정인 것이다.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모험 놀이터 관리자인
클라우스 네데가르(Klaus Nedegaard)는 이렇게 말한다.

“실패를 허용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더 지혜로워지는 길이자 일을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죠.

아이들에게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는지
스스로 알아내는 쪽이 더 좋습니다.”

제시카 조엘 알렉산더(Jessica Joelle Alexander)
(〈행복을 배우는 덴마크 학교 이야기〉, 2019년, 생각정원)

놀이의 교육적 의미

“놀이의 경우,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놀든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지식을 자연스레 익히는 동시에
자기 신뢰를 형성하는 아주 멋진 교육법이다.

(...)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공감, 협상력, 창의성, 자기 절제력,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 형성할 수 있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제시카 조엘 알렉산더. 〈행복을 배우는 덴마크 학교 이야기〉. 2019년. 생각정원)

놀이와 민주시민 역량

“자유 놀이는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친교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동 및 **갈등 해결 기술**을 아이들에게 발달시켜준다.
시민들이 이 기술에 숙달되지 못하면,
일상의 평범한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버거워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누군가와 대치하게 됐을 때
공권력에 의지해 상대방에게 강압을 행사하려 하는 일이
더 잦아질 것이다.”

(조너선 하이트 · 그레그 루키아노프. <나쁜 교육>. 2019년. 프시케의숲)

●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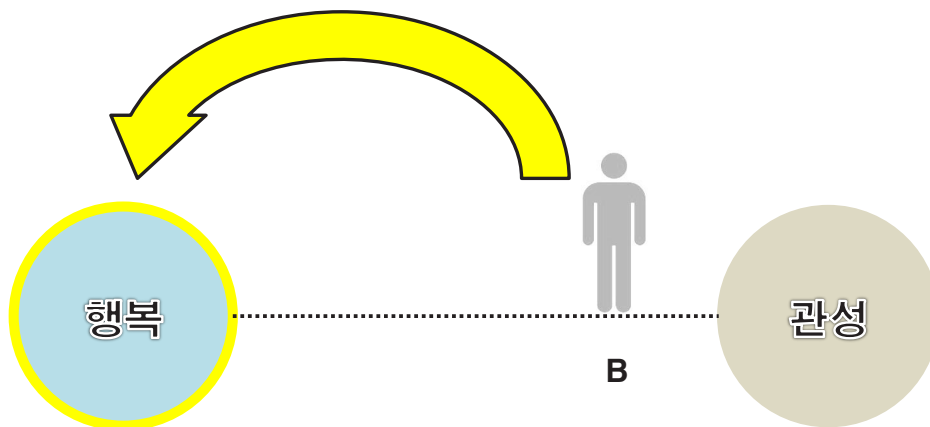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도시에는 오랜 내전과 가난에 시달리
는 아이들을 춤으로 치유하는 무용 학교 ‘**엘콜레히오 델
쿠에르포(몸의 학교)**’가 있다. 이 학교 교사는 모두 전문
무용수인데, 카르타헤나의 대표적 빈민가인 폰테수엘라와 아
로스바르토 등에서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그러
니까 ‘몸의 학교’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무용단인 셈인데, 이
학교에선 길거리에서 배우는 춤과 다르게 다른 사람과 함께 춤
을 출 때 접촉해도 되는 몸의 부위는 어디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곳은 또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 몸을 왜 존중하고 보호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
는지를 배우**다고 한다.

(강윤중 외. <이상한 나라의 학교>. 2020년. 글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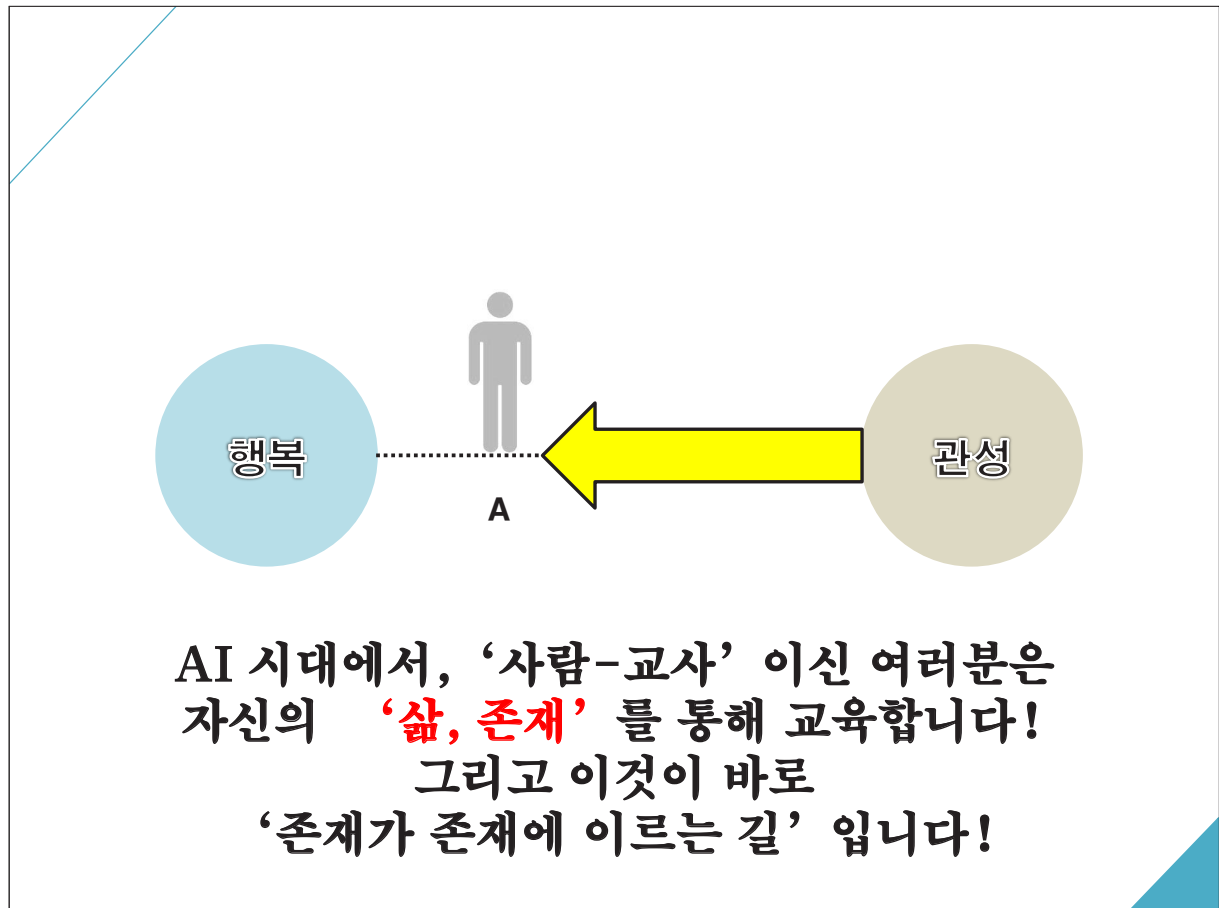
●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 (2) :

“(…) 전쟁에 지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아이들을 ‘몸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
 폭력과 가난 속에 살아온 아이들은 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폭력과 악순환에 쉽게 빠져든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아 존중**이다. **자기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
 그런 존중감이 생기면 결국 폭력을 용납하지 않게 된다. (…)
 그래서 **몸의 학교는 춤을 추기 전 먼저 상대의 몸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친다.** (…)
 “예전에 관심을 끌려고 몸을 확 잡아챌다든지 좋지 않은 말을 섞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남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

(강윤중 외. <이상한 나라의 학교>. 2020년. 글항아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사 분들 중에는
‘말’ 로 **‘전문성’** 으로만 교육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디지털 시대에선
‘AI-교사’ 프로그램이 더 잘합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니?
그러면 친절하게 말하여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니?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도록 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니?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네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여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싶으니?
그러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라.

존경 받는 삶을 살고 싶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여라.

아들아, 나이를 먹으면 너도 알게 된단다.
우리가 두 개의 손을 가진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초청강연

오래된 미래학교:
'초등전일제가 답이다'

장 윤 숙

(전 초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초등전일제가 답이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

1. 초등검토 배경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직장맘으로서 당사자 입장에서 저출산 정책을 펼쳐보라는 제안을 받고 초대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을 맡게 되었다.

초대 사무처장을 맡은 뒤 2005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저출산정책을 분석해봤다. 저출산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살펴봤다. 그리고 저출산의 교과서로 불리는 스웨덴 정책도 비교해봤다. 또한 현장과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당연하면서도 공통된 것은 출산과 육아가 개인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결국 보육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은 주로 보육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보육정책은 양적으로는 충분했다. 문제는 교육정책인데, 교육정책은 전무했다.

스웨덴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육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 ① 국가는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 ② 기업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초등교육은 저출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이비붐세대와 달리 MZ세대는 70%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때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대입제도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육 문제 해결 = 대입제도 개선'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발표한 정책도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초등교육은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현안임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초등교육이 시도교육감 관할로 넘어갔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합계출산율 증가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본질적인 개혁 대신에 단기적이며 표면적인 대책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교육 혁신은 최소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장 장기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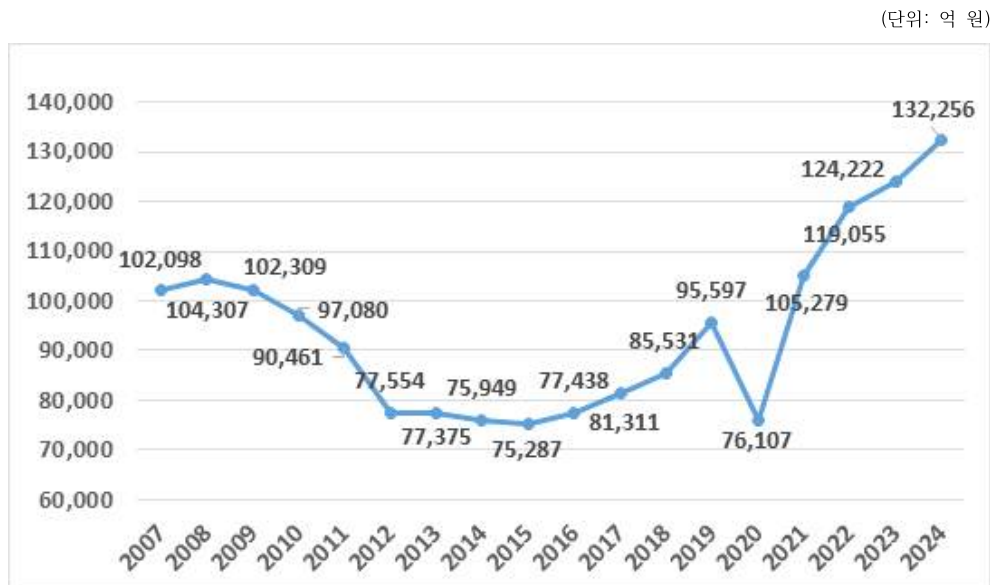
교육정책은 갈등과제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용기를 내서 선뜻 택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필할 수 없는 과제인 것 또한 분명하다.

2. 초등학생 공교육 부족과 사교육 과잉의 악순환 구조와 문제점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공개한 첫 사례이며,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2026년)에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한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으며,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초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44만2천원이며 이중 예체능 비용이 16.3만원, 영어 12.7만원, 수학 8.6만원 등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평균 사교육비는 50만4천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다.



[그림 1] 초등학생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그래프를 보면 2015년 이후부터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있었던 2021년은 예외로, 초등학생은 줄고 있으나 사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4년 기준 13조 2천억을 넘었다.

공교육 부족과 사교육 과잉의 악순환 구조

물론 학교 수업만으로 모든 학습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사교육이 보조 수단을 넘어, 공교육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교육 시스템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학업 성취에 있어 학교 수업보다 학원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학생들 역시 학교보다 학원에서의 성과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교육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학교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수업이 부실해질수록 학습의 공백을 사교육으로 채우려는 가정은 더 늘어난다. 이처럼 공교육의 한계가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지고, 사교육의 확산이 다시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형평성'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가 누리는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는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앞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지 못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계층의 이동 사다리를 밀어버린 사교육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월평균 67만 6,000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반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학생은 20만 5,000원을 지출하여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은 월평균 67만 3,000원, 광역시는 46만 1,000원, 읍면 지역은 33만 2,000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출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오늘날 한국에서 사교육은 일상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시간만 때우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러한 뒤튼린 교육 현실을 단순히 학부모의 욕심이나 경쟁 심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70년 넘도록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공교육의 구조에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연간 정규 수업 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무려 150시간이나 적다. EU25 평균인 738시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뒤처진다. 주당 수업 시간 역시 23시간에 그쳐 미국(30~33시간)이나 캐나다(30시간)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표 1> OECD 초등학교 연간 계획된 수업시간 (2023)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핀란드	일본	한국	OECD 평균	EU25 평균
974	922	1000	864	693	778	655	805	738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걸까? 그 차이는 ‘하루 수업 시간’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오히려 OECD 평균인 185일보다 더 많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해, OECD 평균인 4.4시간보다 1시간이나 짧다. 결과적으로 수업일수는 더 많아도 하루 수업이 짧기 때문에 연간 수업 시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업 시간 운영은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심각했던 교실과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시행된 반일제 수업이 별다른 제도적 개편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짧은 하루 수업이 당연한 운영 방식처럼 굳어진 것이다.

3. 전일제의 개념

1997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간,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주간제는 야간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전일제는 반일제 수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시스템은 독일을 거쳐 일본을 통해 전수됐다. 유럽에서 독일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로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은 독일식 제도의 수용성이 강했다. 교육은 학교에서, 보육은 가정에서라는 생각이 뿌리 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공포했지만, 한국전쟁으로 1954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의 시스템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심지어 국민학교라는 용어까지 그대로 사용하다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면서 용어를 초등학교로 바꾼다. 1950년 의무교육 시행당시 공포된 교육법도 38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정부는 1997년 교육법을 큰 틀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하기로 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의 제24조(수업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립초등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 고학년만 전일제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1시, 3·4학년은 2시, 5·6학년은 3시에 하교하는 시스템이다. OECD 국가는 모든 학년이 동시에 등하교한다.

4. 초등학교 저학년의 반일제 교육의 역사적 배경

반일제 수업이란 한마디로, 오전반과 오후반을 운영한다는 뜻이다. 1950년대에 의무교육을 도입할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일제 수업으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1950년대 의무교육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 인구는 팽창하고 열악한 예산과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체제였다. 한국전쟁 이후 의무교육 도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공교육 시스템 특히 초등학교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식량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빈곤한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 속에도 국가는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의무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의 목표는 의무교육 도입 이전에 64%에 머물렀던 취학률을 1959년까지 96%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는 거의 모든 취학연령의 아동에게 초등 의무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1959년 취학률은 96%를 넘기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취학률의 급격한 상승은 교육 현장에 큰 부담으로 이어졌다. 학교마다 갑자기 몰려든 학생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교실은 물론이고, 교사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임시 천막을 설치해 수업을 진행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반일제 수업, 거대학교 구축, 국가 주도의 교사 양성 등 속도와 효율을 앞세운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반일제 수업 제도는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학교가 하루 수업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제한된 교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빠르게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콩나물 교실'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할만큼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교실에는 70~8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일부 학급은 100명을 넘기기도 했다.

학교와 교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를 늘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싸고 빠르게 학교를 짓기 위해 건물 설계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1962년부터는 '학교시설표준설계도'를 제정해 획일화된 형태의 건물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그 결과, 거대학교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교사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단일 체계의 교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었다. 임시로 초등교사양성소를 설치해 단기 과정으로 교사들을 길러냈다.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에도 교직과정을 두어 이수자에게 준교사 자격을 부여했다.

1962년에는 초등교사 양성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2년제 교육대학이 설립되었다. 교사 양성 과정을 표준화하려는 첫 시도였지만, 졸업 후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학교는 다시 만성적인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많은 교사들이 더 나은 급여와 처우를 찾아 산업현장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교육대학 수를 늘리고, 모집 정원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바로 주어졌고, 별도의 임용시험 없이 교사로 채용되었다.

그 결과 초등교사 수는 빠르게 늘어나 1960년 61,749명에서 1970년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여전히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교사 과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74년 교육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는 교육대학 수와 모집 정원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전국 교육대학 중 5곳을 폐교하고, 11개 시도에 하나씩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어서 1981년부터는 교육 기간을 2년제에서 4년제로 연장해 배출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초등교사 수를 조절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저비용 · 고효율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함께 구조적인 한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는 전일제 수업 운영이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국 어디서나 획일화된 학교 구조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아울러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사 정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와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초등교육 정책이 여전히 저비용 · 고효율 전략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정책과 관성화된 시스템이 오늘날 초등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5. 전일제와 방과후학교, 온종일 돌봄, 늘봄학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우리나라 초등학교 공교육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반일제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면서 MZ세대는 맞벌이 가정이 70% 이상으로 늘었다. 베이붐세대는 전업주부가 대세였다면 MZ세대는 맞벌이가 대세다. 그러다 보니 반일제 수업으로 일찍 귀가한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의 사회적 요구도 강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2005년 방과후학교를 도입한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치고 빈교실을 이용해서 학교가 외부강사나 사

교육업체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도입이후 2015년까지 사교육비는 줄었다.

온종일 돌봄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처럼 초등학생이 정규 수업을 마치고 보호자가 보호가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초등돌봄교실, 학교밖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에 따라 이름을 구분하지만 이것을 통칭해서 온종일 돌봄이라고 한다.

늘봄학교는 윤석열정부가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독일의 전일제와 같은 정책인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해, 정규수업 앞뒤로 아침돌봄(오전 7~9시)과 저녁돌봄(오후 8시까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독일의 전일제학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독일의 전일제는 전 학년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고 마치며 공교육을 개혁한 교육정책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는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뉘어 학년마다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학년별로 수업 시간의 편차도 큰 편이다. 특히 저학년은 오전에 수업이 몰려 있고, 오후에는 정규 수업이 거의 없는 구조다. 비어 있는 오후 시간은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로 채워진다. 겉보기에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비슷하고, 교실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의 성격이나 운영 주체, 교육 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규 수업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하지만, 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 위탁업체나 시간제 강사가 맡는다. 이로 인해 지역·학교·운영 주체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사 전문성이나 정대표적으로 지역과 학교 간 교육의 질 격차,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 간의 연계 부족, 책임 있는 운영 주체의 부재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초등학교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돌봄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초등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초등교육을 바꾸는 출발이 전일제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교육 시스템은 저출산 고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수축사회로 변화된 지금도 여전히 도입 당시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반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단 두 곳뿐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초등학교 저학년 반일제 수업구조가 얼마나 시대에 뒤쳐졌는지를 보여준다.

6. 2000년대 이후 해외 초등교육 사례

전일제는 현재 많은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인 학교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교가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공교육의 역할이 확장된 결과다.

또한 전일제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습 환경에 따라 아이들 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기초학력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때의 교육 경험이 이후의 학업 성취는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은 초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점차 강화해왔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시간을 늘리고, 수업의 질과 학습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왔다.

그중에서도 전일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는 제도 변화가 단순히 운영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공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독일이 학교 운영을 전일제로 전환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사회구조의 변화였고,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 평가에서 드러난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였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가정에서’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강해 오랫동안 반일제 수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학교의 역할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 사건이 있었다. 2000년 OECD에서 실시한 제1회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독일은 32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다. 이른바 ‘PISA 쇼크’로 불리는 이 사건은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업 성취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학습 부진은 교육 불평등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전면적인 교육 개혁에 나섰고, 그 중심에 전일제 학교가 있었다.

2003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이 도입되었고, 연방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되 각 주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초기에는 과도한 수업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과 운영상의 논란도 있었지만, 3년 만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일제를 선택할 만큼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2012년 PISA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상승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독일 연방의회는 '전일제 교육 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오후 4시까지 전일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교육의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는 유럽연합 EU 국가 중 교육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나라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7%를 교육 예산에 사용했는데, 이는 EU 평균인 4.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막대한 투자 덕분에 덴마크는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높은 교육 만족도를 자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덴마크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이후 PISA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육격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덴마크 정부는 2014년에 '기초공립학교개혁'을 단행했다. 핵심 목표는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문해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같은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는 대신, 선택사항이던 방과후 수업을 축소했다. 특히 국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 시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4학년의 정규 수업은 오후 1시에서 3시로 2시간 연장되었고,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 최소 45분은 놀이나 신체 활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혁은 순조롭지 않았다. 정규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줄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적인 파업으로 이어졌다. 약 6만 명의 교사들이 4주 동안 출근을 거부하자, 지방정부는 급여를 중단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갈등은 의회의 업무 복귀 명령으로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이후 덴마크 정부는 공교육 개혁의 방향을 꾸준히 점검해 나갔다. 2014년에 개혁을 시행한 뒤 5년간의 평가를 거쳐 2019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업 과정을 일부 조정했다. 선택 수업을 30분 더 줄이는 대신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했다.

7. 초등학교 시스템, 정부는 왜 해결하지 못했나?

이렇듯 독일과 덴마크를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초등 전일제를 도입하게 된 데는 몇 가지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육격차를 줄이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셋째, 학교는 더 이상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 전일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일제 도입은 2006년 국민연금개혁과 같은 양상이다. 독일이나 덴마크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모든 교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사들은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하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은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소수이지만 강하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동안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구조적인 한계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그치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 변화를 또다시 뒤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초등 공교육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다.

8. 초등학교 전일제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배경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한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사회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부작용도 생겨났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도를 사회의식이나 가치관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문화지체 文化遲滯, cultural lag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인 MZ세대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 직장 문화, 삶의 우선순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198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출생한 MZ세대는 베이비붐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 획일적인 규범보다는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중시한다. 또 조직의 위계보다는 수평적 소통에 익숙하고,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오늘날 소비,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는 단연 MZ세대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가 구축한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세대 간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낡은 시스템과 새로운 삶의 방식 사이의 간극은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MZ세대가 살아가는 현실에 맞게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MZ세대가 부모가 된 지금,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양육 환경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MZ세대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에 부응하려면 학교는 오후까지 아이를 책임지는 전일제 운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돌봄 기능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발달과 배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몇 번의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일제 도입을 지시한다. 이후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초등 전 학년 전일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으나 교육계 반대로 무산됐다. 그리고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초등학교 전일제를 제안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장관과 사무처장 등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무산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를 들고 나왔는데, 늘봄학교를 전일제 학교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돌봄(보육)의 확대이지 공교육의 확대인 '전일제 학교'가 아니다.

9. 전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교육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여전히 오전 수업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후 시간은 사교육, 놀이, 돌봄 등으로 제각각 흩어져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하루 전체를 학교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교육'과 '돌봄(보육)'이 따로 노는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역할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어 흘러가는 지금의 구조로는, 공교육이 맡아야 할 본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교육격차를 줄이거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학교가 학습과 돌봄, 성장과 발달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될 때, 공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안정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여력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엔 아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전일제 운영 국가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서 5시까지, 하루 일과 전체가 학교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정규 수업, 돌봄, 예체능 활동, 숙제 지도까지 모두 학교 안에서 이어지며, 부모는 하루를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와 학원, 돌봄교실을 오가며 이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이 단절되어 피로가 쌓이는 '반일제+돌봄'의 구조와 독일, 스웨덴의 '전일제' 구조는 본질

적으로 다르다.

또한, 반일제+돌봄 구조에서는 오전엔 교과 수업만 하고, 오후엔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돌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과 활동이 단절되고 흐름이 끊긴다. 반면, 전일제 구조는 오전엔 기초 교과, 오후엔 예체능·놀이·자기주도 학습 등 활동 중심 수업으로 하루가 유기적으로 설계된다. 즉 '반일제+돌봄'은 아이의 하루가 쪼개져 운영되는 구조라면, 전일제는 하루가 유기적으로 설계되는 구조다. 전일제로 아이의 하루는 물론이고, 교육의 질, 부모의 삶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10. 초등학생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대응

정부가 <교육통계연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1962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 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1기부터 7기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각 시기별로 어떤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이 추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어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1962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 수의 변화다.



[그림 2] 초등학생 수 변화

1기는 1962년부터 1971년까지로, 초등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차 대전환기다. 당시 정부는 교실과 학교를 확충하고, 교사 양성 규모도 대폭 늘리는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하지만 넘쳐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고, 이 시기 내내 교육의 질보다는 양적 확대가 우선되었다.

2기부터 4기는 1972년부터 2002년까지로, 출생아와 초등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던 시기다. 1980년 중후반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초등학생 수는 여전히 400만 명 안팎을 유지해, 당시에는 저출생을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시기 교육정책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교육의 질과 내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과밀학급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고, 수업 방식도 암기식·주입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합계출생률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초등학생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어든 2차 대전환기다. 인구 억제 정책의 잔재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저출생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과 교육복지 확대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200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도입되었고, 이듬해에는 방과후학교가 대폭 확대되었다.

6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로, 초등학생 수가 270만 명대에서 250만 명대로 줄어든 시기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소규모 학교 지원, 돌봄교실 확충, 미래형 교실 조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했다. 학교의 자율운영 또한 각종 지침과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다.

7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합계출생률이 2016년 1.17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지며 초저출생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3차 대전환기다. 초등학생 수는 26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64만 명으로 줄어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초등학생 수가 어디까지 줄어들지 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신규 교사 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학생 수가 극히 적은 학교는 통폐합하거나 공동학구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최대 1,000명의 초등교사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원 감축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원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당장의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느라 교사 수를 줄이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 수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1기부터 7기까지의 교육정책 흐름만 봐도, 학생 수가 증가할 때는 교실과 교원을 늘리고, 감소할 때는 교원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학교 운영, 교원 수급, 교육재정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틀 안에서 단순 조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이제는 공교육의 기능과 구조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초등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1. 개선된 교육지표와 2026년부터 전일제를 도입을 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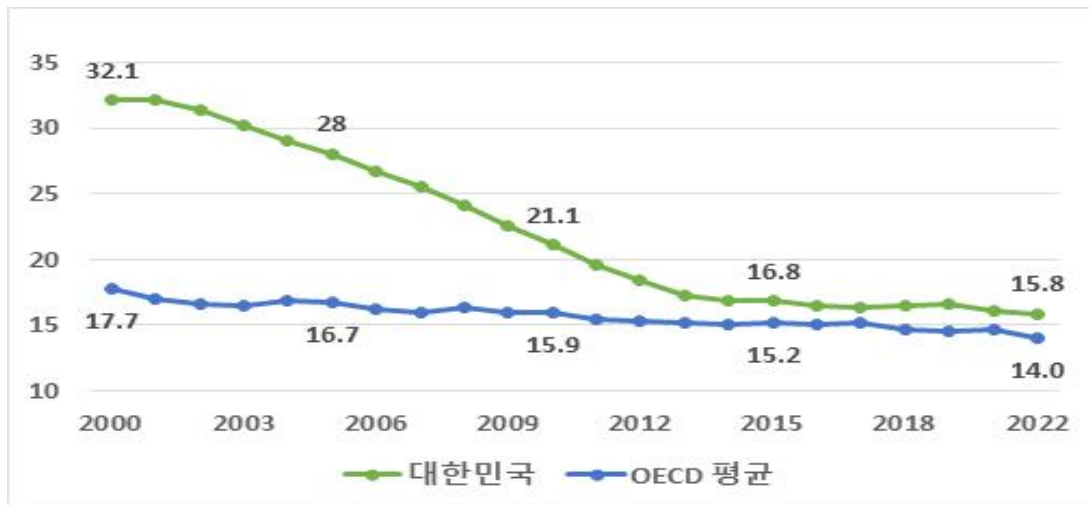
그동안 열악했던 교육지표는 공교육의 질적 혁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가로막아 왔다. 교육의 질을 논하기 전에 교실 하나, 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당장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여러 교육지표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물리적 기반도 일정 수준 이상 갖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실에서 전일제 도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들고, 그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는 등 교육계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초등교육을 본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핵심 교육지표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개선된 지표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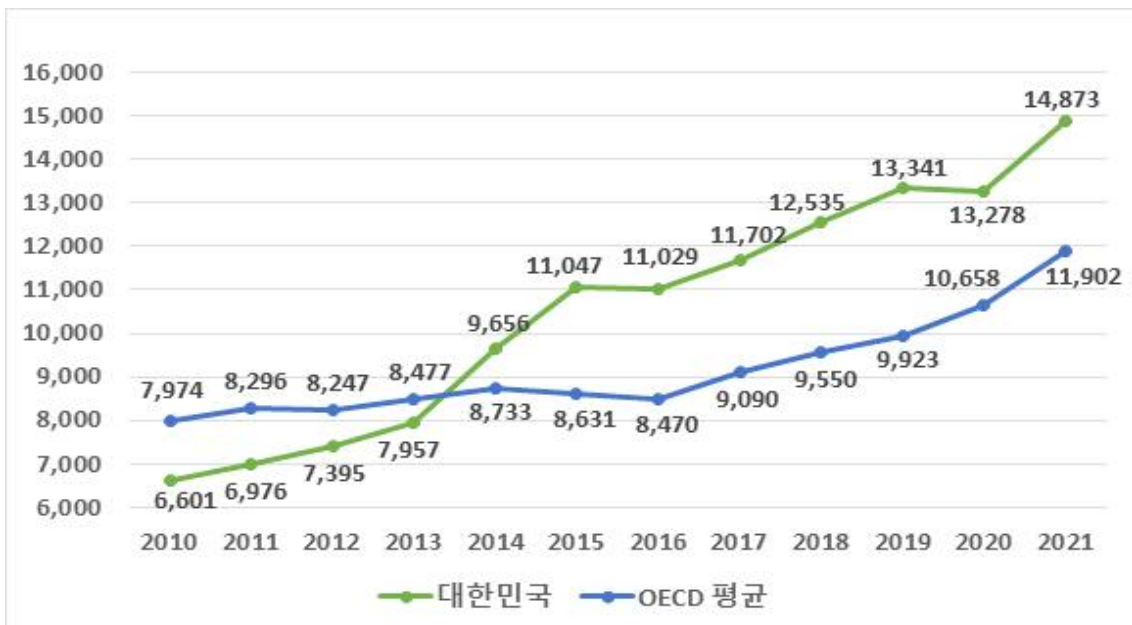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교 학급당 OECD 평균 비교 학생 수



[그림 4]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위 : 달러)



[그림 5] 초등학생 1인당 OECD 평균 비교 공교육비

전일제 시행에 앞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전일제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 확보다.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전일제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는 얼마나 될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필요한 교사 수 = 증가하는 수업 시간 ÷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로 구할 수 있다.

$$76,000 \times 4.5 \div 21.1 \approx 16,208 \text{명}$$

즉, 전일제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최소 교사 수는 약 1만 6,000명 정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수의 변화는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2>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수 변화(2024년도 기준)

학 년 도	학생 수 (교육통계 활용)	① '24년도 교과담당 교사 수 유지 시		교과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			
				② '24년 14.50명 유지		③ OECD '22년 평균 14.0명 기준	
		교과담당 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필요 교사 수	과원 교사 수	필요 교사 수	과원 교사 수
2018	2,711,385	165,711	16.36	186,992	-21,281	193,670	-27,959
2019	2,747,219	167,007	16.45	189,463	-22,456	196,230	-29,223
2020	2,693,716	167,184	16.11	185,774	-18,590	192,408	-25,224
2021	2,672,340	168,186	15.89	184,299	-16,113	190,881	-22,695
2022	2,664,278	171,017	15.58	183,743	-12,726	190,306	-19,289
2023	2,603,929	170,840	15.24	179,581	-8,741	185,995	-15,155
2024	2,495,005	172,127	14.50	172,069	58	178,215	-6,088
2025	2,401,146	172,127	13.95	165,596	6,531	171,510	617
2026	2,267,367	172,127	13.17	156,370	15,757	161,955	10,172
2027	2,104,269	172,127	12.23	145,122	27,005	150,305	21,822
2028	1,926,411	172,127	11.19	132,856	39,271	137,601	34,526
2029	1,769,354	172,127	10.28	122,024	50,103	126,382	45,745
2030	1,641,611	172,127	9.54	113,215	58,912	117,258	54,869

교사 1인당 학생수 14.5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 대략 16,000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며, 2030년에는 대략 6만명 정도의 과원교사가 발생한다.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과원 교사’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한다면, 전일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 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물론 여기에 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전담제나 공동담임제, 방과후 활동 전담 교사나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따로 두어 담임교사에게 집중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12. 결론

우리나라 초등 공교육은 오랫동안 ‘오전 수업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정규 수업이 대부분 오전에 끝나면서, 그 이후의 시간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이 방과 후 사교육에 기대거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같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지역·학교 간 편차가 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이는 공교육이 정규 수업 이후의 시간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까지 떠안으며 가계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이 ‘자녀의 사교육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아이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5,000가구를 표집)에서는, 92.4%의 학부모가 전일제 수업으로 학교 시간이 늦춰질 경우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들이 오래전부터, 학교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해왔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교육이 방과후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사립초등학교의 전일제 운영이다. 물론 사립학교는 교육 여건이나 재정 면에서 공립학교와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하루를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정규 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과 오후 정규 수업은 물론, 예체능·외국어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자율학습이나 독서 활동이 이어지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 돌봄서비스와 연계되기도 한다. 이처럼 전일제는 단지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학교 안에서 조화롭게 구성하는 교육 방식이다. 학습과 놀이, 돌봄과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

된 하루를 통해 아이들은 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과 정서 발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일제는 일부만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교육의 기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 학습격차와 사교육 의존, 돌봄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넘겨준 시간을 되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과서를 바꾼다 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학교는 여전히 수업만 하는 공간에 머물러 있을 뿐, 방과 후 생활과 연결된 통합적인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개별 교과나 활동 중심의 단편적인 개선을 넘어, 학생의 하루를 학교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학습과 생활, 돌봄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전일제는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다.

<참고> 미네소타 주(州) 거주, 1학년 학부모가 보내온 글('19.9월)

오후 4시에 마치는 미국의 초등학교

...(전 략)...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나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올해 9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들은 (미국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해 6월에 끝난다.) 8시 반에 등교해 4시가 조금 지나 집으로 돌아온다. 이는 정규과정으로 그와는 별도로 학교는 수업 전후 2시간 동안 과외 프로그램을 제공해 필요한 경우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유치원과 같은 등하교 시간 덕분에 아이도 나도 초등학교라는 큰 변화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 미국의 초등학생은 학교에 있는 시간은 길지만 수업이나 활동은 그리 무겁지 않다. 학교 숙제가 없다. 방학 숙제도 없다. 독서와 운동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강제사항은 아니다.

학습목표는 명확하나 이를 풀어내는 방식이 한국과는 다르다. 우선 정해진 교과서가 없으며 수업은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과 놀이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기와 만들기 등의 모든 활동과 놀이가 20분, 30분 단위로 짧게 진행되어 아이들이 지겨울 틈 없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간식 시간이 있어 집에서 가져 온 간단한 간식을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매일 한 시간 학교 체육관이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이 수업 시간표에 포함되어 있다. 점심식사 후 오후 시간은 독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초등학교는 처음이라 긴장했을 아이의 표정이 편안해지고 학교가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직장맘인 나는 아이의 하교시간이 4시라는 사실이 고맙기만 하다. 가장 큰 이유는 오후까지 아이가 학교에 있어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소화해 주니 아이에게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과 같은 과외 수업을 따로 시키지 않아서 좋다.

...(중 략)...

내년 여름 구국을 앞두고 나도 아이의 오후 학원 스케줄을 알아보는 엄마들의 대열에 합류할 듯 싶다. 한국에서 아이를 동네 초등학교에 보내려 하는데 방과 후 아이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할지 걱정이 앞선다. 학원에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주제강연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국가책임제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숙의하기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전일제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에 대한 숙의: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

목차

- I.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우화
 - 1. 들어가며
 - 2. Peddiwell'의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 모델
- II. 초창기 종일제 유치원 모형 연구
 - 1. 현대사회 반일제 학교와 종일제 유치원 모형
 - 2. 탈현대 사회 전일제 학교 모형
- III. 유보통합과 놀이중심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 1. 유보통합과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 2.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의 새로운 설계
- IV.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전일제 교육에서 '놀이 ~ 배움'으로 이어지는 성찰과 혁신
 - 1. 전일제 학교에서 시간과 교육내용 운영 변천사
 - 2. '놀이~배움'을 강조한 20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의미와 가치
- V. 마무리

I.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우화

1. 들어가며

오늘 학술대회는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학교에 대한 숙의’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학술적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계의 큰 화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보통합의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 놀봄교실까지 더하며 돌봄과 교육을 합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학문적 탐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유보통합을 완성해 가기 위해 다시 여러 단체와 당사자들이 다시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유보통합’을 ‘오래된 미래학교’라는 주제와 연결하며 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0-2세를 대상으로 개정하였지만 고시문과 함께 발표된 현장 실행자료 등을 보면 영유아교육전체에서 유보통합,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총체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어 이를 찬찬히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오늘의 주제는 영유아교육과정, 그리고 향후 0-5세 통합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과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등을 모두 하나의 ‘오래된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것이다. 영유아교육은 반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반일제와 방과후 과정을 병행하는 유치원과 이미 온종일 운영을 해온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놀봄교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성찰적 자세 없이 추진되고 있고, 유치원의 반일제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온종일 운영 체계를 어떻게 단일한 하나의 구조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유보통합의 문제가 모두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다. 이를 ‘오래된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풀어보는 것은 매우 은유적이고 교육적 상상력이 더하여 있다고 본다.

놀봄교실과 온종일 어린이집 등은 이미 전일제 학교 모형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고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일제 교육’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초창기 교육은 모두 앎과 삶이 통합된 마을공동체에서 전일제 교육을 통해 경험중심의 교육을 실행해 왔다. 이후 근대화속에서 공립학교가 출현하고 교과중심의 학교가 반일제학교가 정착되고 돌봄과 교육이 이미 분리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여 마치 ‘기본형 교육과정’이라는 고정된 반일제 교육과정 시스템을 학교의 고정된 기준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오래된 과거에 전일제 교육을 이미 실행해온 인류의 지혜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된 과거의 교육으로부터 오늘 현재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려보는 작업을 ‘오래된 미래학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 발표는 학교 교육과정의 근원을 찾아보는 노력부터 유보통합, 그리고 현재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이 된 2024 표준보육과정의 개정내용, 그리고 놀이중심의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이 왜 불가피하게 필요한지 등에 주목하여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2 Peddiwell의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 모델

오늘날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궁극적 목적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정이 필수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주요한 사항이다. 학교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해법들이 오늘날 존재하지만 결국 학교는 교육과정(curriculum)을 둘러싼 담론의 실천 장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지점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탄생과 함께 교육과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교육과정이 먼저 있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도대체 오늘날 교육과정이란 무엇이고 교육과정은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정광순(2019)은 최초의 교육과정은 원시인의 마을에서 아래와 같이 만들어진게 아닌가를 추론해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우화를 설명하고 있다.

<검치호랑이 교육과정 우화> 중 일부

우리 부족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몸을 따듯하게 하며, 안전하게 자려면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주먹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네. 지루함을 쫓기 위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마냥 노는 아이들을 개울로 데리고 가서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놀이를 하자고 할까 ... 또 웅덩이로 데리고 가서 다른 식으로도 물고기를 잡는 놀이를 해 볼까 ... 이렇게 해서 새주먹은 첫 번째 교육과정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를 찾았네. ... 털이 긴 말들이 개울로 물을 마시러 오면, 몽둥이로 말들을 때려잡아 볼까 ... 말들이 덩불에서 자고 있을 때 때려잡아 볼까 ... 풀 뜯고 있는 말들을 때려잡아 볼까 ... 이렇게 해서 ‘말을 발견하면 때려 잡는다’가 두 번째 교육과정이 되었네 ... 마지막으로 부족 사람들이 사는 동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안전을 위협하는 검치 호랑이를 불로 내쫓는다. ... 이렇게 해서 ‘불로 검치호랑이를 내쫓는다’라는 세 번째 교육과정을 발견했네. ... 그리고 ‘새주먹’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러 갔네. ... 아이들은 개울에서 ... 웅덩이에서 ...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말들을 보면 몽둥이로 때려잡는, ... 불로 동물들을 내쫓으며 그냥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했네. ... 이렇게 논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가면서 부족을 좀 더 넉넉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부족의 더 많은 아이들이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 때리기, 불로 호랑이 몰아내기를 하게 되었고, 새주먹의 교육은 성공적이었네.

(Peddiwell, 1939/1995, pp. 38-40)¹⁾

*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흥미로운 부분은 놀이와 교육과정에 대한 우화이다. 원시마을에서 새주먹은 마을의 앞날과 평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고민한 페다고지스타이다. 그는 ‘검치호랑이’라는 우화 속에서 오늘 교육과정에 주는 꽤 흥미로운 서사를 제공하였는데 몇 가지 주요한 문장을 독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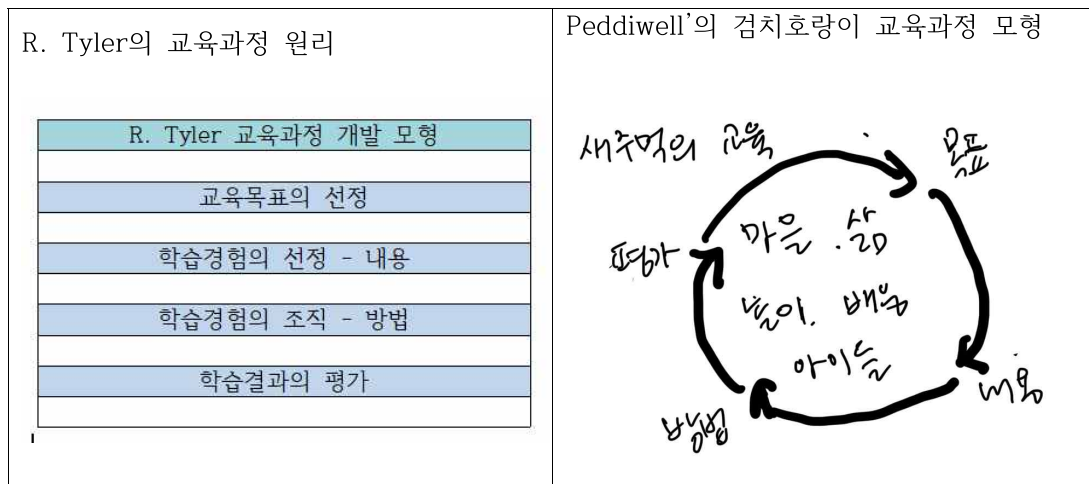
첫 번째, 원시마을에서 교육과정의 목적은 ‘먹고, 자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위한 삶에서 발현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원시 부족의 ‘새주먹’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마을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1) 출처: 정광순(2019). 미래사회를 위한 ‘놀이와 교육’(임부연 외) 중 4장. ‘놀이, 교육, 그 관계 맺음의 역사’ pp.136-165. 교육과학사.

살아가는 점이 중요하고 이를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고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잘 배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의 과정을 교육과정의 원리로 생각한 Tyler(1949)의 교육과정과는 사뭇 다른 설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타일러가 생각한 교육과정은 오늘날 전 지구적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근본 모형이 되었다. 타일러는 일단 교육과정이란 목표가 먼저 분명히 선정되어야 하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무엇을 학습자가 경험해야 할지, 즉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가르쳐야 할 내용이 목표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타일러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의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이에 따라 타일러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며 배우게 할지 방법론을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내용과 방법을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이 학습의 결과가 결국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반듯이 확인하는 과정과 다시 목표에 반영하여 순환되는 교육과정 설계를 모형화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 모형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 1] 타일러와 Peddiwell 교육과정 모형 비교

그러나 원시마을 부족에서 커리큘럼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설계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새주먹은 타일러의 모형대로 교육과정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을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삶에서 필요에 의해 교육방법이 먼저 출현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새주먹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새주먹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즉 삶과-삶을 연결 지어 늘 생각하는 실용적 페다고지스타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시 부족에서 새 주먹은 매우 중요한 교사-스승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의 목표를 우선 선정하였다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더 배불리 먹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는 그냥 있지 않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표를 미리 선명하고 명료하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었다. 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성 ‘먹고, 자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삶 중심의 고민’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것은 목표의 선정이기보다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특별히 생각하는 페다고지스타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삶을 보고 이리저리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삶과 뛰어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뛰고, 헤엄치고, 올라타고, 기어오르고, 부수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놀이를 보면서 이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과 어떻게 연결 지을까 고민하고 그냥 심심해서 노는 아이들을 데리고 냇가와 숲속, 마을 속에서 부족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론을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 설계자였고,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아이들의 경험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교육적인 것’에 대한 방법론을 고안한 커리큘럼 개발자로 보인다.

세 번째,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가 체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새 주먹은 더 행복한 부족의 삶을 위하여 고민하는 자였고, 행복이라는 막연히 추상적인 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기보다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라는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고민하여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물고기 잡는 법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면 그것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방법론을 동시에 고민하고 그것은 통합적이었다. 물고기 잡는 법의 순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미리 선정하고 이를 알기 위하여 아이들의 강으로 데리고 가서 방법론을 조직하였다기보다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해 보고 내용과 방법을 분리하지 않고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 통합하며 배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네 번째, 놀이와 삶, 그리고 교육과정을 연결한 놀이-삶 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새 주먹이 존경할 만한 페다고지스트였다는 점은 그가 일부러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억지로 아이들에게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고 놀이와 삶이 연결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놀이는 아이들이 삶에 필요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헤엄치고, 수풀을 헤치고 무리 지어 다니고 즐겁게 놀이하였지만 때로는 무료하고 심심하기도 하였는데, 새 주먹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함께 놀이와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육적 내용과 방법이 결합 된 놀이에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였네’라는 점이다. 놀이는 새

주먹의 마을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방법이 되었지만, 그것은 내용을 가진 교육적인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새주먹은 놀이-삶-내용-방법-평가가 하나로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주먹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고 고안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교육과정을 찾았네... 두 번째 교육과정이 되었네... 세 번째 교육과정을 발견 하였네...’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위 교육내용이 여러 개의 교육내용과 실처럼 꿰어지는 삶 중심이 통합교육과정 모형처럼 보인다. 즉, 새주먹이 사는 마을의 교육과정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교육내용이 연계하여 꿰어진 통합 교육과정의 모형으로 보이고 이는 교과로 단절되기보다는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마을 교육과정의 통합적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아 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내용은 그 내용과 방법을 함께 해가면서 다치지 않는 법, 어는 순간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방법을 가진 ‘교육과정이 되었네’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교육과정이란 그냥 독립된 개별적, 날개의 활동이 아닌, 이러한 여러 활동이 의미를 가지고 엮어지는 ‘일련의 내용을 묶음 단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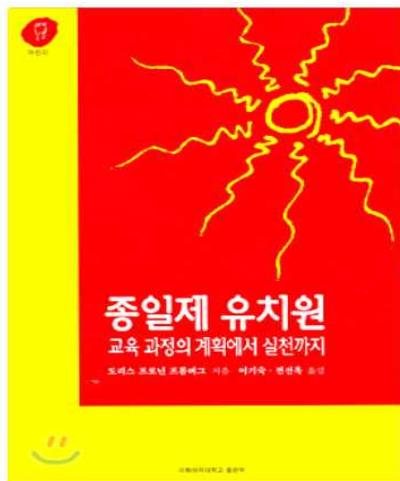
이러한 패디웰의 검치호랑이 교육과정 모델은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오늘날 교육과정은 이미 타일러 교육과정 모형에 의해 정착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타일러 모형이 유일하고 가장 온전한 모형이 아님을 이미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Piner, 2013).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초창기 마을공동체에서 교육은 ‘전일제’ 모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마을이 곧 학교라는 공간이었고, 마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교육적 공간이었다. 시간은 교과교육의 수업 시간 단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일과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살고, 숨 쉬고, 먹고, 자고, 다투고, 갈등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삶의 모드를 투영한 삶 중심의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새주먹은 교육적인 것을 마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 행복감으로 고민하고, ‘항상 생각하는 실천가’로서 훌륭한 교사되기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하면서 놀이 하였고, 아이들도 그냥 노는 것보다 일을 결합하며 더 재미를 느꼈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초창기 마을 학교의 통합교육과정 모형에서 오늘날 학교 교육의 운영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다시 돌봄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삶’을 다시 어떻게 합할 것인지의 논쟁으로 바라보며 탐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II. 초창기 종일제 유치원 모형 연구

1. 현대사회 반일제 학교와 종일제 유치원 모형

패디웰과 다르지만 미국의 Fromberg(1999)라는 유아교육학자는 이미 ‘종일제 유치원’이라는 미래적 학교 모습을 다룬 ‘Fullday Kindergarten’을 통해 전일제 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그려보고 있었다. 이미 25년 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그때 당시 미국과 전 유럽, 우리나라까지 지구촌은 모두 반일제 학교가 가지는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본다. 프롬버그의 종일제 유치원의 내용은 그 당시 9-12시의 3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던 미국의 유치원에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처럼 전일제로 운영하는 크고 작은 Daycare Center들이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돕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롬버그의 종일제 유치원의 내용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더 요구되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기만 하는 daycare 센터에서 유치원에서 반일제 집중적 교육과정을 좀 더 확장하여 온종일 체제에서 실행하는 수요도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프롬버그는 종일제 유치원의 저서를 통해 종일제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 지침서.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 종일제 유치원의 조직, 활동 중심 과학교육, 언어와 문해 학습, 설립 등 10개의 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목차

- 001. <상호 작용적 분위기의 종일제 유치원>
- 002. 종일제 유치원은...
- 003.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
- 004. 인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 005. 종일제 유치원의 조직
- 006. 사회과학에서의 사회적 연구
- 007. 활동 중심 과학 교육
- 008. 협동적인 수학
- 009. 미학, 예술, 그리고 놀이성
- 010. 언어와 문해학습
- 011. 종일제 유치원의 설립

[그림 2] Fromberg, 'Fullday Kindergarten'

물론 프롬버그의 종일제 유치원은 이미 근대사회에서 반일제 학교가 정착된 사회였고, 타일러 모형에 맞추어 영어와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였다. 이러한 공교육의 모형으로 자리잡은 학교를 원시마을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반일제 학교와 종일제 학교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에는 적절한 예시일 수 있다.

프롬버그 종일제 유치원에서 제안한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중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초등 저학년의 수·과학, 언어 등을 강조하고 음악·미술·체육과 놀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모형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사실 미국에서 유치원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전의 학령으로서 우리나라 5세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5세반 운영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교육과정 운영에 비슷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일제 유치원의 용어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이루어진 1999년 시기를 보더라도 신선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정책연구 등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문무경 외(2009)는 ‘종일제 유치원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에서 반일제 유치원에서 실행 가능한 종일제 프로그램을 탐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종일제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증가하였고, 오늘날은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이미 어린이집 운영 체계와 유치원의 운영을 모두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논의에 이르게 되었다.

부록 2. 종일제 교육과정 주제		
생활주제	주제	종일제 주제
유치원과 친구	유치원의 환경 유치원에서의 하루 유치원에서의 친구 우리 유치원의 역사	즐거운 종일제 나와 친구들
나와 가족	나의 몸과 마음 소중한 나 가족의 구조와 문화 소중한 가족	소중한 나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모습 우리 동네 생활 우리 동네 이웃 우리 동네 문화	유치원 동네 도움을 주는 기관 주변의 공공시설
동식물과 자연	동물과 자연 식물과 자연	동식물의 사랑과 보호 함께 하는 자연
건강과 안전	즐거운 운동과 휴식 깨끗한 나와 환경 맛있는 음식과 건강 안전한 놀이와 생활	건강한 생활
생활 도구	다양한 생활도구 생활도구로서의 미디어 생활도구를 움직이는 힘	유치원의 도구들
교통 기관	여러 가지 탈것 교통기관의 구조 고마운 교통기관 교통통신과 교통생활	보행 안전 탑승 안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놀이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한 우리 전통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 여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 세계의 자연환경과 사회현상	세계는 하나
환경과 생활	물과 우리생활 흙과 우리생활 바람과 우리생활 빛과 우리생활 소리와 우리생활	친환경 교육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 교과부(2009). 유치원지도서 13 종일반. p. 19

[그림 3] 초창기 전일제 유치원 교육내용 안²⁾

2) 출처: 문무경 외(2009). 종일제 유치원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정책개발원. p. 122.

초창기 종일에 유치원의 교육과정 모형을 살펴보면 모두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연이어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고 오전 교육과정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후 오후는 ‘모두 특성화 과정’을 제안하여 오전과 오후의 교육과정 이원화를 매우 뚜렷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 전후까지 전일제 유아교육기관의 요구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어린이집의 팽창하면서 2008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던 시기까지 종일제 기관의 교육내용은 여전히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중심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일제로 가기 위하여 오후 시간의 방과 후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고민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과 오후를 ‘주제’로 차별화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방법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전일제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으면서 오전 교육과정처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특별활동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등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지 않고 종일제 운영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새로운 전일제 유아교육의 운영안이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전일제 유치원의 모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종일제 관련 다양한 연구를 시행한 바를 살펴보면 반일제 유치원을 종일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생활주제’를 어떻게 다시 세부화하여 나누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많았다고 보인다.

초창기 유치원 종일제 모형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을 즈음 이미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08년 제1차 표준보육과정 모형을 만들며 전일제 유치원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오전 기본 교육과정과 오후 방과 후 과정을 나누지 않고 온종일 1교실 1담임제 모형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어린이집은 대부분 12시간 운영시간을 유지하여 오전과 오후 돌봄을 이어가며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를 모두 충분한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 어린이집은 주제중심의 오전과 오후 활동에 크게 집중하기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느슨한 일과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12시간 운영에서는 종일제 유치원 모형처럼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현장이 이미 적용하고 깨닫고 있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전일제 학교에서는 생활주제와 단위 활동 시간, 특성화 활동이 연이어 실행할 수 없음을 현장의 자연발생적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검치호랑이 모형과 비슷하다.

이러한 전일제 학교를 패디웰이 제시한 원시마을 공동체부터 추론하여 보면 [그림 4]와 같다. 초창기 전일제 유치원은 근대학교가 공교육으로 설립되면 반일제 학교 모형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립 초등학교의 반일제 학교 모형이 먼저 시작되면서 유치원 또한 반일제 형식으로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면서 온종일 학교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

하면서 온종일 어린이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때 반일제 유치원은 온종일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점 방과후 과정을 늘려가면서 전일제 학교 모형을 닮아가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서로 닮아가는 모형을 따라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을 오늘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운영시간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원시마을공동체 전일제 교육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림 4] 전일제 학교 모형 변천사

2. 탈현대 사회에서 전일제 학교

이를 철학적으로 풀어보면 현대사회가 탈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교의 모형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며 새로운 학교모형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학교는 이제 교육과 돌봄, 삶과 삶이 분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융합하고 새로운 시간과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탈현대 사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모두 전일제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고 각 학교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돌봄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그림 5]와 같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모두 전일제 운영방식을 택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방식에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탈현대 사회의 특징은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는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는 학생이 없고 폐교가 늘고 학급당 아동비율이 줄어든다. 물론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만의 특성이 아니다. 세계는 모두 인구감소에 따른 저마다의 정치경제사회교육을 통괄하며 새로운 정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와 전일제 학교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특이

성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초학력이 매우 뛰어난 사회이고 학교와 입시제도의 고강도 학습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탈현대 사회에서 입시제도는 이제 자연발생적 학습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의해 기획되고 재생산하는 구조로 진입하였다. 새로운 MZ세대 또는 이후의 알파세대까지 새로운 젊은 사회 구성층에게 출산과 양육, 교육은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아야 한다. 모두 출산 양육을 꺼리고 한 아이를 키우더라고 교육에 관심이 높고 사교육비를 어느 세대보다 많이 지출한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이고 여성의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강화, 즉 페미니즘적 자기철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의 증가가 한 사회에 거대한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20대 이후 남녀의 세계관의 차이도 급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페미니즘적 기준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담론’이 하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다. 자기가 사는 사회가 좀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부와 계층, 권력의 세습화와 고착화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지 않을 듯한 예감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자기가 겪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부동산과 교육비 등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기 어려운 사회의구조속에 살고 있다. 아무도 자기 자녀가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삶의 불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자기 존재 하나에만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도 쉽지 않을 세대를 자녀에게 투자하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와 같은 불안한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던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자식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현대 사회의 계층과 담론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미래 학교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암담하다. 현대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 세대는 국가와 학교가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전일제 양질의 교육, 먹거리와 안전, 자기아이를 더 주목해주는 선생님, 다양한 문예체 활동, 자연과 숲 체험 등 이제 이러한 보편적 요구를 넘어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직업훈련 등의 요구가 보편화되어 있다. 학교는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끌려가고 있다. 유아교육은 더 아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기괴한 교육적 욕망들은 오늘날 의대준비반,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어이지고 있다. 학교가 교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이 학교를 끌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 반일제, 고강도 학습, 입시제도, 지금을 희생한 미래의 행복 등의 담론에 갇혀 있을 수 없다. 학교도 변해야 하고, 사회도 변해가야 한다. 그것이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III. 유보통합과 놀이중심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오늘날 전일제 학교 운영은 불가피하게 맞이한 이미 와버린 미래이다.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형 국가들이 보편적 돌봄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이는 전 국민의 약자 돌봄이라는 접근과 맞물리며 어린 시기의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국가책임형으로 실행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학교가 단독으로 풀어갈 수는 없다. 오늘 여기서는 학교의 미래모형으로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모형으로서 전일제 학교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1. 유보통합과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임부연(2025)은 새정부의 영유아교육 정책을 바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어린이 중심 국가책임제 유보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전일제 운영을 포함한 융합형 시간 선택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전일제 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는 어린이의 존재론적 그리고 사회적 시간 모두를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시간 모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긴급토론회 자료집(2025)에 제시된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과 교육을 편제한 운영 시간표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초등학교	돌봄	초등학교 교육과정 4시간	늘봄교실	
공립유치원	돌봄	기본 교육과정 정교사 담임제	방과후(특별활동) 비정규직 교사	.
사립유치원	돌봄	1정교사 담임제 교육	연장반 + 저녁돌봄 (특별활동 교사)	
	7:30	9:00	13:00	17:00 19:30
어린이집	돌봄	기본보육시간 + 연장 보육 1정교사 담임제 온종일	연장보육 보조교사	

[그림 5]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비교³⁾

또한 전일제 학교 모형은 그것을 오전과 오후의 시간 모두를 합하여 어린이가 꽤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과 공간은 모두 양질의 교육적 경험이어야 함이 강조하고 있다. 오전의 교육이 중요하고 오후가 교육이 아니라는 논리는 어른의 관념이지 어린이 중심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 어린이는 오전과 오후의 교육적 경험의 질을 나누어 하지 않는다. 오전에는 교육과정을 하고 오후에는 특별활동을 한

3) 출처: 임부연(2025).

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전에 질이 더 높은 경험을 하고 오후에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도 된다는 논리를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더구나 유보통합으로 모두 시간 통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가 어린이의 존재론적 시간(임부연, 2024)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유보 이원화 시간 모형을 단일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점은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 2025. 7. 11. 국가기획위원회에 유보통합을 전달한 24개 단체의 제안서에는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 안이 들어 있었고 여러 학술단체와 시민단체가 이모형에 동의하였다. 이는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을 제정할 때 시간의 모형에는 전일제 시간 모형이 선택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12시간 운영시간은 전체 시간이 모두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아니지만, [그림 4]처럼 온종일 운영시간이 ‘나누거나 시간의 블록화 없는(시간 표처럼 단위 수업을 나누는 것이 아닌) 흐르는 시간’이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반듯이 온종일 전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반듯이 다녀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부모의 경제활동 등 어른의 사회적 시간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린이가 머무르는 시간이 온종일이라면 이는 오전 오후 모두 양질의 교육적 경험이어야 한다. 어린이는 오후 시간에 여기저기 원하지 않는 공간을 이동하여야 하거나, 시간에 쫓기며 특별활동에 참여하거나, 담임 선생님이 아닌 여러 특별활동 선생님을 바꾸어 만나야 하는 불안한 시간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유보통합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전일제 시간과 공간 이외에 어린이 중심 전일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 중심의 ‘존재론적 시간 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하여 전일제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그 전일제 교육과정은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romberg나 교과형 종일제 모형이 아닌 Peddiwell이 우화로 제시한 ‘검치호랑이 교육과정’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지 제안한다. 현재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을 4-5시간으로 고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보육과정(0-5세)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12시간의 운영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큰 차이이자 격차이다. 어린이 중심의 ‘존재론적 시간 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하여 전일제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전일제 교육과정은 모형을 이미 어린이의 존재론적 시간에 기반하여 선택가능한 유형으로 남아 있도록 제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의 지향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검치호랑이 교육과정’ 모형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의 새로운 설계

Peddiwell에 의해 소개된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은 현재 유보통합과 전일제 운영을 포괄하는 다양한 운영방식을 고민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의 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

는 ‘돌봄 교육’과 ‘늘봄교실’에 대한 교육 정책이다. 이처럼 학교는 생물처럼 변화하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는 원시마을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Peddiwell의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은 ‘전일제이며 삶과 얹이 통합된 교육과정’이었고, 자연발생적이었지만 새주먹에 의해 체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정광순(2019)의 연구에 실려 있는 새주먹의 마을에 교육과정이 점차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빙하기가 오자, 녹은 빙하가 부족이 거주하는 땅으로 밀려왔다. 부족 사람들의 양식인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게 되었다. 혼탁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민첩해졌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족의 초원에는 물이 찼다. 긴 털의 말들은 건조하고 너른 다른 평원을 찾아 떠났고, 대신 그 자리에 빙하와 함께 온순하고 민첩하고 예리한 후각을 가진 영양들이 나타났다. 부족 사람들이 먹을 말고기와 옷으로 지을 가죽을 제공하던 잡을 말이 없어졌고, 영양은 민첩해서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가 없었다. 습한 대기에 호랑이들은 폐렴에 걸려 대부분 죽었고, 부족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낼 호랑이가 없게 되었다. 호랑이 대신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곰이 부족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의 안전을 위협했다. (Peddiwell, 1939/1995, pp. 42-44)

... 중략...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첩성이나 힘을 길러야 하네. ... 호랑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키워야 하네. ... 이를 위해서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 때려잡기, 불로 호랑이 몰아내는 이런 기본 과목만으로도 학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가르칠 것이 많다네, ... 그물 짜기, 덫 설치하기, 함정 파기처럼 유행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없네. ... 학생들은 민첩성이나 힘, 용기 같은 기본 감각이 너무나 부족하네 ...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 거센 물살 속에서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바위와 같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도 버티어 내는 그 무엇이네. 교육이란 어떤 영원한 진리이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 때려잡기, 불로 호랑이 몰아내기’ 같은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은 그중의 하나라네. (Peddiwell, 1939/1995, pp. 49-50)

(정광순, 2019. pp. 138-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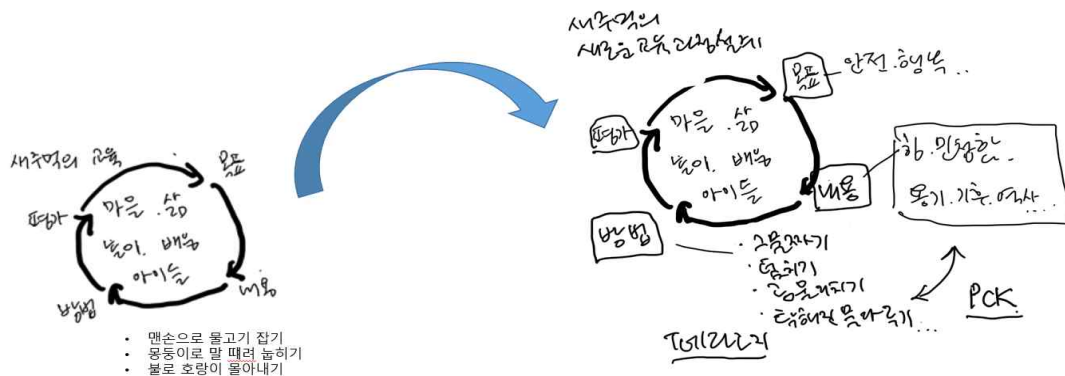
새주먹이 살던 원시 부족 마을의 생태환경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탈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사는 모든 환경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 다만 그 가운데 본질은 ‘차이와 반복’(Deleuze, 1994)가 있다. 새주먹의 마을 교육과정인 ‘물고기 잡기’ 등의 활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하는 마을 생태계에 따라 변해야 했다. 인류는 깨달기 시작하였다. 맨손으로 잡기, 불을 사용하기 등의 구체적인 행위성을 관통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진정한 교육에서 반듯이 인류가 익혀야 할 ‘시대변화를 읽어 가는 감각’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며 인류가 생존을 위하여 익혀야 하는 가치 있는 지식들...’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힘, 용기, 민첩성’ 등의 추상적 교과용어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새주먹 마을의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은 더 정교해지고

더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 교육과정은 ‘시간성을 초월한 진실’을 알아내고 ‘거친 물살에서도 버티는 힘’과 같은 새로운 교육내용을 요구하였다.

오늘날 국가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민첩성, 힘, 용기’는 국가교육과정에 선정해야 하는 내용이고, 맨손으로 혹은 그물 짜기, 몽둥이로 혹은 뗏을 놓아, 불로 혹은 함정을 파서라는 ‘활동을 선정하는 일’은 교사가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선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느 것으로 ‘더 잘 놀 수 있는 지’ 그런 놀이로 가까운 미래를 살 성인이 된 아이들의 미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의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일을 국가와 교사가 분담할 때, 국가교육과정이 하는 역할인 지속성과 교실 교육과정이 하는 역할인 생활과 삶에 어필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에 맞는 다양성, 모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정광순, 2019, p. 144)

새주먹이 사는 원시 부족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새주먹은 계속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면서 유익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어떻게 유지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페다고지스트였다. 그는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우리는 새주먹이 설계하는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교화되어 가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과정은 새주먹이 생각한 삶-삶이 통합한 전일제 교육과정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게 보인다. 얼핏 보면 교육내용의 구조화 과정을 따라가며 추론이 가능해 지지만 어떻게 놀이, 삶, 삶의 전일제 모형이 사라지고 반일제 교과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진 학교교육과정이 표준안으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주먹이 생각한 교육과정의 운동과 변화는 오늘날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일제 교육과정 설계모형...
교육과정 설계의 운동과 변화



[그림 6] 전일제 교육과정에서 내용의 정교화 과정

먼저 새주먹이 생각한 최초의 교육과정으로서 검치호랑이 교육과정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새주먹의 교육은 항상 ‘어린이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에 기반하고 있었다. 새 주먹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유익한 것이어야 하고,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의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R. Tyler 교육과정 원리의 최초 근원지일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가 놓쳐버린 교육과정 구성원리 밖의 조건들, 즉 사람, 생활, 놀이, 행복, 가치 등의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텅 빈 교육과정의 구조 설계’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학교교육과정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를 매우 관념화하고 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생활세계, 실제 삶과 고민, 매일 맞닥뜨리는 지하철, 게임, 못마땅한 부모들, 저녁 식탁의 대화 등등 모든 세계가 빠져버리고 교육 내용의 정교한 교과 지식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주먹의 교육과정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내용과 방법이 서로 순서체계가 아닌 ‘관계의 역임’ 속에 있음을 알았고, 아이들의 놀이가 여전히 모든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임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일제 학교였고, 앞-삶이 통합된 교육과정이었고, 놀이-배움이 유지되는 ‘오래된 미래학교의 교육과정’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새주먹은 ‘생각하는 교사’였으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페다고지스타로서 자기 인식론에 충실한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오고 가는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역량으로서 PCK(교수내용지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가 교육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가장 적합한 가르치는 방법론을 창조적으로 고안하고 적용하는 페다고지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광순(2019)은 검치호랑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이, 내용, 배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명히 짚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가 개발하는 교실교육과정에서 ‘놀이’는 여전히 교사가 선정하는 ‘수업 내용’이며(김현구, 정광순, 2018), 국가교육과정의 민첩성, 힘, 용기라는 교육과정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shulman, 1986, 1987)이라는 위상을 가진다. 즉 놀이가 방법으로 위치를 점한다기보다는 내용이면서 방법이라는 점을 원시시대 교육이 놀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발원지의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정광순, 2019, 144.)

... 중략 ...

다시 홀트처럼 말하면, 아이들은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그 세계에는 온통 ‘놀이’밖에 없다. ‘그냥 놀이’와 ‘교육의 의도를 품은 놀이’밖에 없다. 그냥 노는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의도를 품은 놀이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시시대 교육활동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성찰점이다.(정광순, 2019, p. 143)

IV.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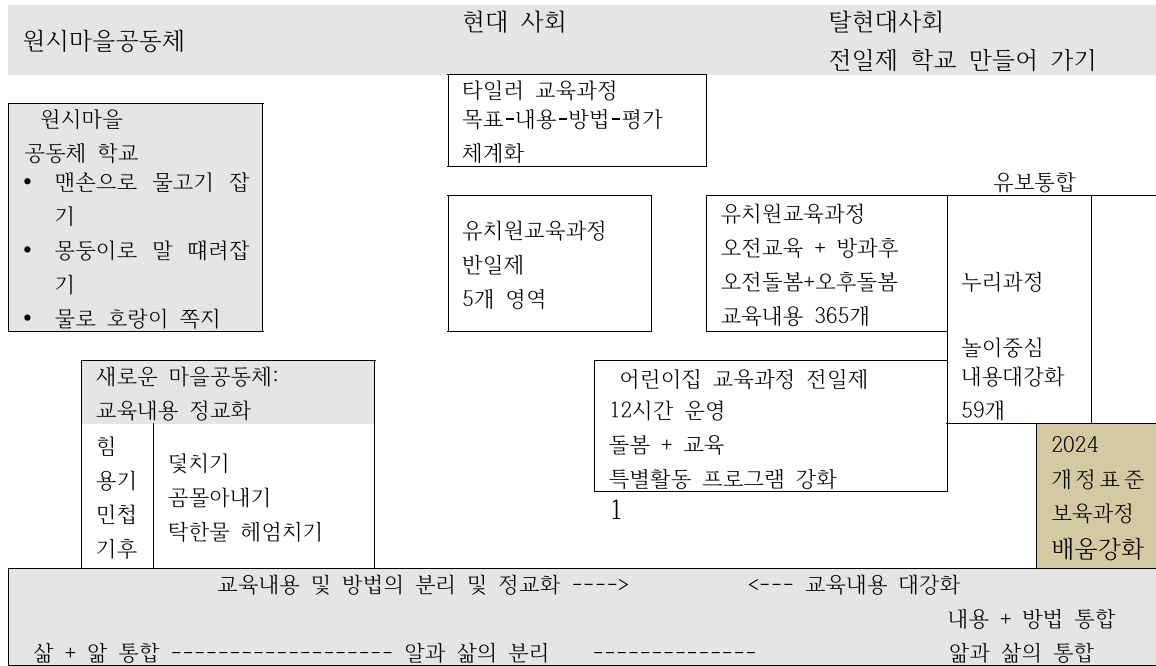
전일제 교육에서 ‘놀이 ~ 배움’으로 이어지는 성찰과 혁신

1. 전일제 교육에서 시간과 교육내용 운영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을 때 탈현대사회로 진입하며 유보통합과 전일제 학교를 그려 보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누리과정을 이제 하나의 0-5세 통합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즉 ‘영유아’와 ‘놀이’라는 점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탈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새주먹의 마을이 빙하기와 함께 교육환경이 전체가 변해가는 것과 비슷한 처지이다.

전일제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 담론속에서 ‘돌봄’과 ‘교육’ ‘놀이’와 ‘삶’을 불가피한 통합체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이후 탈현대 사회로 오면서 학교는 시간의 편제방식과 내용의 편제방식을 크기 바꾸지는 않았다. 즉 교육과정과 돌봄은 완전 분리된 차원에서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유치원은 탈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유아 수가 감소하고 생존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여전히 12시간 운영은 아니지만 점점 전일제 모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운영시간과 교육과정 편제를 뚜렷이 나누지 않고 생활과 돌봄과 교육을 일원론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전 교육을 뚜렷히 실시하는 유치원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이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

전일제 학교는 불가피하게 생활과 놀이가 불가피하게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있다. 전일제 학교가 마치 온종일 강력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하루종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가 있고, 한편으로는 생활중심의 삶과 삶이 통합으로 강력한 교과중심 교육내용이 소홀해 지거나 모호해 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거나 교과로 회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놀이와 삶 중심의 전일제 학교에서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교육내용’에 대한 실행력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을 365개에서 59개로 대강화하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 즉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감소로 이러한 의혹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방법론으로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교수내용의 축소와 배움의 축소에 대한 비평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일제 학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교육과정은 하루 종일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중심도 아니며 삶 중심으로 설계 전환에서 교육내용과 배움의 내용에 대한 명료성이 요구된다.



[그림 7] 전일제 학교교육과정 교육내용 변천사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의미

[그림 7]에서 보면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배움’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을 크게 개선하고 보완하고 한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일제 학교가 돌봄과 교육, 놀이와 배움을 포괄하기 위하여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놀이~배움’을 강조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의미와 가치

전일제 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삶과 얹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사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육내용, 지식, 배움이 놀이와 경험, 삶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3-5세 대상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가시적으로 ‘놀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면,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0-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배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제 0-5세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해 갈 때,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담긴 ‘놀이~배움’의 의미를 반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0-2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5세 누리과정에 비해 교육내용의 세부가 대폭 강화되어 있고, 0-1세 실행자료, 0-2세 실행자료의 내용을 보면 교육내용의 실행력을 ‘배움 읽기’로 매우 소상히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임부연(2024)은 육아정책연구소 정기 간행물인 육아정책연구 12월호에서 ‘유보통합과 어린이 배움 읽기’에 대한 내용에서 왜 배움 읽기가 유보통합과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새주먹이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설계 모형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새주먹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고 놀이와 배움에 대한 성찰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아의 경험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결하여 배움 읽기 |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5개 영역으로
배움 읽기

2-2

배움 읽기의 과정 : 5개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내용 찾아보기

영아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영아의 경험에 주목하여
놀이 모습을 기록하기

신체운동·건강	언어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 제공	언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 제공	나와 타인 사이에서 관계 맺기	자연과 문화에서 예술 활동을 즐거움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길들임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함	나와 타인 사이에서 관계 맺기	자연과 문화에서 예술 활동을 즐거움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길들임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함	나와 타인 사이에서 관계 맺기	자연과 문화에서 예술 활동을 즐거움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길들임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함	나와 타인 사이에서 관계 맺기	자연과 문화에서 예술 활동을 즐거움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연결하여
배움으로 읽어 가기

[지호는 등원할 때 항상 판다 인형을
먼저 찾아 안으며(경험) 특정한 놀잇감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내용),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이불 위에
인형과 함께 누워 보며(경험) 스스로
반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내용)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 → 배움 읽기]
또한 [지호는 낮잠을 잘 때 아기 돌보
이 인형에게 이불을 덮어 주거나 놀이할
때 손가락으로 밥을 먹여 주는 등(경험)과
같이 주변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
모방하기를 즐기고 있다(내용). →
배움 읽기]

교사가 5개 영역을 단순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40개의 보육내용으로 읽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영아의 배움을 이해하게 된다.

[그림8] 2024 개정 표준과정에서 배움 읽기 과정

[그림 8]처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지금까지 교육내용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였던 5개 영역의 실행 방식을 놀이를 중심으로 다소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배움이 강조된 0-1세 및 0-2세 실행자료를 참고하여 보면 놀이에서 영아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사가 명확히 기술하는 방식도 매우 구체화하고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비록 영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모든 영유아가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교육내용을 놀이와 생활 속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배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일제 학교를 설계해 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일제 학교를 오전 교육과 오후 돌봄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가 단순히 돌봄을 포함하기 위하여 오전 교육과 오후 방과 후를 분명히 하기보다는 전일제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통합방식에 성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학습자는 돌봄과 교육 모든 시간에서 주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오전에도 가능하고 오후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과 돌봄을 나누어 편제하기보다 전일제로 편제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어우러지도록 돕는 것이 더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다. 이것은 새주먹이 살던 원시마을 공동

체에서 알과 삼을 통합한 교육과정의 모형과 닮아있고 아이들은 그냥 노는 것보다 배우며 노는 것에 더 즐거워하는 학습자였음을 알 수 있다. 전일제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과정과의 연계하여 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후에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지 않고 경험이 단절되거나 과잉학습과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접근이 될 수 있다. 배움을 강조하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교과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자의 발현적 경험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초등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추후 초등전일제 학교 설계에서 더 탐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V. 마무리

오늘날 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은 국가의 재정이나 교사의 근무 시간 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어렵고 곧바로 실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아이들은 새주먹이 사는 마을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생태환경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의 일상, 놀이, 자유, 즐거움, 친구와 도전, 갈등이 있는 진짜 삶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 영유아들에게도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고, 가족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시대 조건은 새주먹의 전일제 학교의 시간 모형과도 비슷하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머무르고 향후 사회에서 일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새주먹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내용만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내용과 방법이 함께 고민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태계와 부합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는 다채롭고 이러한 새주먹의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성찰을 서로 보완하며 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정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유치원은 반일제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을 먼저 정하고 방법론을 정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전일제 교육을 하고 방법론을 먼저 펼치면서 내용과 방법이 많이 통합되어 있지만, 새주먹이 생각한 교육의 진실... 즉 내용을 생각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옷 갈아입기, 배변 훈련하기, 간식 먹기, 놀기 등의 내용과 방법이 통합되어 있지만, 옷 갈아입기와 배변 훈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새주먹은 그것을 ‘교육적인 진실’들 혹은 의미 있는 진실적 가치들이라고 숙고하였다. 이렇게 생활의 기술들은 결국 교육적 진실 사람들의 살아가는 힘, 생활을 유지하는 지속력, 책임감 등의 내용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더 고민을 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실천적 담당자들과 더 숙의의 과정을 더 거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러한 점이 서로 보완되어야 온전한 어린이 중심 유보통합 전일제

교육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전일제 영유아교육기관이 모두 12시간 혹은 8시간의 교육과정을 강제적으로 이행 할 수 없고 자율적 선택제가 필요한 것처럼 전일제 교육과정 모형도 다양한 반일제, 연장적 교육과정과 함께 하나의 선택제로 국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반일제 교육과정의 표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거치기를 더 권하고 싶다.

또한 전일제 교육과정이 융합형 시간선택제 모형으로 고려 된다면 그것은 새주먹이 설계한 교육과정처럼 ‘놀이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Fromberg(1992)나 문무경(2009)의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고민에 우리가 빚지고 있지만, 그러한 주제중심 교육 내용 모형은 이제 앎-삶이 통합되는 미래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성찰과 변혁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전일제 학교에서 돌봄-놀이-배움-삶이 분리되지 않은 설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오전 기본교육과정과 오후 특별활동으로 나누어지는 모형도 기본적으로 새주먹이 주창한 ‘교육적 가치 있는 진실’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특별활동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냥 놀이하는 것보다 특별한 목적으로 가진 의도한 놀이에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설계의 과정이지 이미 정해진 기준이 될 수 없다. 놀이중심 전일제 영유아교육과정은 기본형 전일제 운영시간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간 모형제에 따라 ‘놀이’를 기본형으로 실행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새주먹이 설계한 것처럼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재미있게 놀이하는 방법론, 새로운 도전과 가치 등을 현명한 폐다고지를 가진 교사에 의해 설계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교육부(2025).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 문무경, 이기숙, 이순례, 장영희, 최윤정, 송신영 (2009). 종일제 유치원 내실화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9-03.
- 임부연 외(2019). 미래 사회 놀이와 교육 I권. 교육과학사.
- 임부연(2024). 유보통합시대 영유아의 배움 읽기. 육아정책연구, 6-17.
- 장윤숙(2025).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 한울림.
- 정광순(2019). 미래학교를 위한 ‘놀이와 교육 1’(임부연 외) 중 4장. ‘놀이, 교육, 그 관계맺음의 역사’ pp.136-165. 교육과학사.
- Bobbitt, F. (2021).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학지사.
- Fromberg, D.(1999) 종일제 유치원: 교육과정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Fullday Kindergarten. 이기숙, 전선옥(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Peddiwell, J. A(1995).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 교육에 관한 우화. 김복영, 김유미(역). 양서원
- Pinar, W. (2013). 윌리엄파이나 교육과정 이론. 정정훈, 김영천(역). 아카데미프레스.

토론 I

초등전일제에 대한 토론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전문위원)

초등전일제에 대한 토론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지만 취학 전 교육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의 경우 하루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과 운영에 따라 시간을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실내 수업, 바깥 놀이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수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적게 느껴진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1~2학년군의 총수업 시간¹⁾은 1,680이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활동이 포함되면서 총 시수가 1,744로 증가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744시간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4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융합 체계이다. 여기에 아침 돌봄, 틈새 돌봄, 저녁돌봄이 보완적으로 늘봄학교에 포함된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방과후 활동이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2000년대 초반 저출산 원인으로 제기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 여러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로 통합되어 2006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로 2006년부터 도입·운영되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 ‘돌봄’의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강연 내용을 보면, 초등전일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 격차 심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론자 역시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아동이 초등학교 방과 후 방치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의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과정 혹은 학교 교육을 학생의 삶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며, 방과 후 생활과 연결된 통합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초등전일제를 공교육 확대의 측면에서 도입하는

1)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데 여러 난관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급이다. 며칠 전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 신규 교사 선발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는 고등학교의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 정책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문제는 제안하셨듯이 한 문제가 특히 교사 수급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과 전담제나 공동 담임제, 방과후 활동 전담 교사나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예산 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적 처리가 뒷받침될지는 의문이다.

초등전일제가 단지 오전 수업의 확장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 동의할 것이다. 발표자께서 보여주신 교육의 여러 지표(학습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만약 교사 수급과 재정 지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혹은 초등전일제라는 정책이 교사 수급과 재정 지원을 이끈다면, 이제는 논의를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전일제의 구조로 제시한 독일의 사례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초 교과, 놀이, 휴식 등 시간을 편성하여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정덕(2014)²⁾은 주요 선진국 6개국의 초등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시수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단위 학교의 시간표 사례들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시수 분포의 측면에서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외 활동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편제와 시수의 국제비교 결과 OECD 주요 6개국에 비해 교과목의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저학년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교과에 시수가 편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 수가 비슷한 미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의 교과별 시수만 분석한 결과 전 교과에 걸쳐서 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고학년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과목 수와 시수가 저학년에 비해 그 차이는 적지만 수업 시수가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6개국의 시간표를 살펴본 결과 수업 시간의 길이가 싱가포르는 30분, 핀란드는 45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저학년과 중·고학년 모두 수업시간이 30분에서 60분까지 학교 및 학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시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와 핀란드의 Integrated Day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반일제를 채택했던 독일은 전일제로 전환하면서 오전에는 교과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 시간에는 비교과 활동들로 구성하여 늘어난 시수를 교과의 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신체 및 예술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 일과 전, 후 혹은 중간에 비교과 활동과 돌봄을 넣어서 수업시수를 점진적

2) 온정덕(2014). 초등학교 수업시수 국제비교 및 적정화 방안 연구(issue paper). 교육부.

으로 확대하였고 학교마다 시간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행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일제를 도입한다면 증가된 시수를 교과 수업보다는 학생의 특기 적성 활동, 놀이 중심 교육, 선택 활동 등으로 다양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전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과의 연결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교사 수급, 재정적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교육 주체들의 집단적 숙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전일제가 자리 잡는다면 학생 개인의 측면에서는 전인적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들의 학업 격차를 줄이는 것을, 사회의 측면에서는 여성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 II

양육자가 본 유·보육 현장과 문제

장 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전 국회의원/
노키즈존 한국사회 공동저자)

양육자가 본 유·보육 현장과 문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전 국회의원/ 노 키즈존 한국사회 공동저자

양육자·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전일제(동시하교제)를 적극 지지해왔다. 202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초등 1~6학년 15시 동시하교제 시행이 담겼다.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며 맹비난했다. 아래는 당시 교사노조의 기자회견문 일부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 에듀케어를 폐지하라!”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 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무엇보다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 동시 하교’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OECD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은 807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655시간에 그쳤다. 미국은 973시간, 호주는 1000시간에 달한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95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6%를 차지한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2021년 기준)은 1만2535달러로 OECD 평균(9550달러)에 비해 31% 높은 수준이지만, 필수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아 사교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초등 3시 동시하교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1대 대선에서는 동시하교제를 버렸다. 2025년 4월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동시하교제 공약 검토를 비판하며, 초등 돌봄은 지자체 이관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다.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전교조가 주장한 지자체 중심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밝히고 있다. 21대 강민정 의원(중학교), 22대 백승아 의원(초등학교) 등 민주당이 평교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잇달아 선출하면서, 민주당의 교육정책은 점차 학생·학부모 의견과 괴리되고 있다.

장윤숙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의 확대이지 공교육의 확대인 ‘전일제 학교’가 아니다. (담임)교사와 돌봄 교사, 방과후 강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을 교육하지만 협력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 임부연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전/오후의 분절, 교육/돌봄의 분절 문제는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초등 교사들은 초등전일제(동시하교제)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전일제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3~5세 단계적 무상보육·교육’을 담고 있지만 유보육기관의 특활/방과후 수강 비용은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사립 간의 차이가 크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도 초등 방과후 수업 비용보다 크다. 이 부분이 국정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부터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뉴욕대학교 스톤경영대학원 교수)의 저서 《불안 세대(2024)》를 함께 읽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4부작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범죄, 남성 극단주의 확산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3월 한 달간 글로벌 누적 시청 1위를 기록했다. 3위 말 영국 정부는 영국 전역의 모든 중등학교에서 <소년의 시간>을 시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PC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용이 금지된다.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호주, 미국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그러나 학교 내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교사단체는 학생 정신 건강을 우려하면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했지만, 이미 학교 현장은 학습용 디지털 기기 도입이 과도하게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추진한 AI디지털교과서는 일단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었지만, 이미 과도한 디지털 교육자료가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안전교육, 성교육 등 각종 교육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돌봄 시간엔 유튜브 등 영상을 틀어 주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가정에서는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네킹처럼 꼼짝도 않는 영유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15년 출생한 본인의 자녀도 ‘아기 상어’를 부르며 자랐다. 작년 9월 나와 딸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삭제했고, 스마트폰을 시청하지 않는다. 삶이 극적으로 변하진 않았지만, 같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수영장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 교내 스마트폰 금지보다 시급한 것이 영유아 시기의 디지털 사용 규제다.

고병헌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현재의 영유아들이 처한 현실이 더욱 걱정된다. 유보육 기관이야말로 디지털 프리존이 되어야 한다. 영유아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술, 관계와 소통의 방식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는 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소통해야 한다. 양육자도 자녀에게 스마트폰 지급을 최대한 유예하고, 자녀와 관계 맺기를 중시해야 한다. 현재 유보육 기관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오전/오후, 교육/돌봄의 분절뿐 아니라 가정과

기관의 분절이며 유해한 디지털 환경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DIY 키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DIY 키트를 완성하라고 지급하는 것은 영유아의 개성과 창의성을 짓밟는 것이다. 하지만 유보육 기관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에서 DIY 키트를 가지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때우기’ 행태가 만연해 있다. 학부모로서 느끼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준은 의외로 낮다. 자녀가 학년을 더할수록 사교육을 이용하는 대다수 학부모의 선택을 조금씩 납득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공교육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다. 양육자들도 함께 고민을 더 하겠다.

토론 III

영유아교육정책을
국가 교육정책 체계에서 논의:
국가수준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서 출발하자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영유아교육정책을 국가 교육정책 체계에서 논의: 국가수준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에서 출발하자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 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학교에 대한 숙의]는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시도하고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을 숙의하고 있다. 토론자는 학술대회의 기조강연, 초청강연, 주제강연 원고를 읽으면서 유능한 학습자로서 영유아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교수학습의 도구인 영유아교사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기초로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정책은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 속에서 숙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보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교육부 산하의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교육청 역시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유보통합으로 교육부에서 영유아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영유아정책국이 되었다. 영유아정책국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하여 시행하며, 관련 법령 정비, 실태 조사, 재정 지원, 시설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시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 역시 저출생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명칭이 ‘영유아정책국’이라는 것은 여전히 영유아시기의 교육의 중요성, 고유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현재 유보통합이 ‘구조통합’에 매몰되고 ‘내용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임부연, 2025)은 영유아교육을 국가수준 교육정책의 체계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적 관행에 매몰되어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미래지향적 방안을 모색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교육은 국가 교육정책의 체계의 첫 단계인 영유아교육정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영유아교육과정의 고유성, 정체성 확보하는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과정 제정 필요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은 오랫동안 교육과정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실행되어왔고 이러한 관행은 영유아기 배움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졌다. 현재 3~5세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0~2세 표준 보육과정은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2024년 12월에 0~2세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0~ 5세 교육과정은 동일한 구성체계 및 5개 영역 체계로 통일되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0~5세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며,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영유아중심 교육과정이란 영유아를 유능한 학습자로 존중하는 것이다. 유능한 학습자인 영유아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놀이는 영유아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배움의 방식이며, 매우 고유한 영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로서 영유아의 유능성은 영유아보다 성인이 유능하고, 발달이 빠른 아이가 느린 아이보다 유능하고 0세아보다 3세아가 유능하고 3세아보다 5세아가 유능하다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이다. 영유아는 매 순간을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미래 목표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령전기’ ‘학령전 교육’이라는 용어는 학령기 교육 즉 초등교육을 중심에 두고 영유아기 교육을 준비하는 시기와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통합법 제정 이후의 과제로 미루고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을 설계하는 출발점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기관의 운영 기준, 교사자격체계 등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설계에 따라 기관의 운영, 교사자격체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영유아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수직적 전이 경험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은 영유아교육과정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그 중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음교육’은 영유아교육과정의 고유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5세 이음교육’은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이음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설계, 운영해야 할 지침’(교육부, 2024)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를 별도로 제시하여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교육과정처럼 구성되어 있다. 5세아의 시간을 초등학교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교육현장을 왜곡시키고, 초등학교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영유아의 수직적 전이는 교육과정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시기는 다른 시기를 위한 준비기간일 수 없다. 즉 5세아의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로 전이될 수 있다. 인위적이고 교사주도적인 이음교육은 영유아교

육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이음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만 5세반 교사만의 과업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협업, 나아가 초등1학년 교육과정에서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질 내용이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안한 수평적 전이 경험

영유아교육과정은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교육과정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권혜진, 2024). 영유아기에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영유아교육과정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존재, 생존, 삶과 밀접한 배움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 교육에서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학습자인 영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학습자인 영유아는 교육과정에서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사의 실행에서도 돌봄과 교육은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오전을 교육과정시간, 오후를 돌봄시간으로 분절하는 것은 영유아기와 영유아교육과정의 특성에 적절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평적 전이를 어렵게 한다. 초·중·등 학교급에서 교사가 교체되는 것과 영유아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영유아교육과정은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맺음에 기반하므로 교사의 근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영유아-교사 관계 두가지 요소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영유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담임제, 시차제 근무시간 등 유연한 방안, 영유아 교사의 신분 및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돌봄과 교육의 분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최근의 일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돌봄과 교육의 분리가 필요했을 수 있다면, 현 시점은 다시 돌봄과 교육의 분리가 가져온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무엇보다 영유아에게 미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할 시점이다.

영유아교육과정 실행력 갖춘 영유아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영유아교육과정의 유능한 학습자인 영유아의 경험의 방식은 주변 세계와의 능동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영유아와 교사의 관계 맺음은 전면적인 인격적 관계이다(Karpov, 2005). 또한 영유아교육과정은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교육과정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이는 영유아교사 존재 자체가 교수학습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도구는 교사 존재 그 자체이다.

유능한 학습자인 영유아중심 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일상과 놀이 경험이 교육내용의 실재라는 것은 인식하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해나갈 수 있으려면,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세상을 다른 시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실행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양성

정이나 현직교육과정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4개정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실행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의 ‘배움읽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25). 교사는 영유아를 유능한 학습자로 존중하고,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일어나는 배움을 읽는다. 배움읽기를 기초로 교사는 자신의 교수학습실천을 하기 위한 배움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배움읽기의 축적은 영유아평가, 교육과정 운영평가로 순환되는 것을 경험하여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매우 오랫동안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은 교사중심, 교과중심, 미시적 교수전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실행, 교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의 도구인 영유아교육과정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영유아교사관을 정립하고 페다고지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양성교육체계 및 재교육체계의 재구조화가 매우 시급하다.

UNESCO(2021)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하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보고서에서는 교육을 교사의 가르침과 학습자 개인의 성취중심을 보는 것에 벗어나서 교육을 공동재(a common good)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재로서 교육의 본질적 특성은 “인간을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경험되는 것이며, 교육기관에서 교사, 교육자, 학습자가 함께 모여 나누는 공유된 활동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활동(UNESCO, 2021:14)”이다. 영유아교육에 대해 함께 그려보는 미래는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펼쳐져서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미래가 모쪼록 가까이 다가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혜진 (2024). 영유아 교육과정에 내포된 돌봄과 교육의 통합에 대한 탐구. 구성주의 유아교육연구, 11(3), 121-147.
- 교육부 (2024). 2024 5세 이음교육표준안.
- 교육부 (2025). 2024개정표준보육과정: 0~1세 실행자료.
- 임부연 (2025). 유보통합을 넘어 어린이 중심 국가 책임제 영유아 교육 구현을 위한 국가 기조 수립 제안유보통합 담론의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영유아교육 정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 Karpov, Y. V. (2005). The Neo-Vygotskian Approach to Child Development. 교사와 부모를 위한 비고츠키 교육학(네오비고츠키주의 아동발달이론(실천교사 번역팀 역). 서울: 살림터.
- UNESCO (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미래교육위원회보고서.

토론 IV

희망으로 함께 부를
행복한 영유아교육의 미래: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이 진 희

(계명대학교 교수)

희망으로 함께 부를 행복한 영유아교육의 미래: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이진희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토론원고를 준비하면서, 기조강연, 초청강연, 주제강연 원고가 흔들어 깨운 교사시절의 막막하고 먹먹했던 기억들,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읽게 된 책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특히 『이상한 나라의 학교』에서 읽은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흘러가는 어린이의 시간에 대한 문구가 깊은 감응을 주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관습의 틀을 넘어서는 실험과 운동으로 신나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며 “삶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는”(Bhave, 1970/2007), 행복한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덴마크의 행복 교육과 느린 페다고지

고병헌 기조 강연자께서는 교육학, 신생물학, 사회심리학, 문학 등을 넘나들며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을 밝혀, 가르치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교사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未來, 그러나 ‘다가올-정의(justice-to-come)’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교사,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즐겁게 상상하며 함께 걷는 교사의 발걸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소비주의와 빈부격차 심화,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 발달과 줄어드는 일자리, 신자유주의적 인적자본 논리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 등,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아름답길, 교실에서 누구든 환영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길, 그래서 마음껏 배우며 성장하길 바라며 묵묵히 걷고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유아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학술대회에서처럼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열린 토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긴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미래에 대한 교육적 비전, 가치, 목적을 공유할 때 새로운 실험과 운동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Peter Moss(2018/2021)는 발달심리 이론이나 교과지식, 분절적 학습목표, 가시적 결과물, 주어진 규범과 제도 등의 안정된 것을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어 실험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흥미롭고 놀라울 만한 것을 만들어 가는 레지오 에밀리아나 스톡홀름 실험 등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이상한 나라의 학교』에서 우기와 홍수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면 학교가 그들에게 와야 한다”라며 태양력으로 작동하는 ‘떠다니는 학교(floating school)’를 만든 방글라데시 사례도 놀라웠습니다.

기조 강연자께서 들려주신 덴마크 교육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행복 설문조사와 휴게 시간, 감정 읽기와 행복 곡선, 삶의 일부인 성과 죽음에 대한 진솔함, 모험 정신의 중시와 더 지혜로워지는 길이자 제대로 배우는 방법으로서의 ‘실 패’, 서로를 향한 유대감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제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더 어려서부터, 가장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단조롭고 지루하기까지 한 직선의 길로 달려 더 빨리 더 많이 습득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숨막히는 속도를 반성하게 합니다. 다양한 생명체와 자연의 신비를 만나게 해주는 곡선의 구불구불한 길, 신나는 모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주는 회절적 여정을 상상하며 ‘느린 페다고지(slow pedagogy)’의 가치를 생각해봅니다. 느림은 결핍이나 뒤처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만나면 멈춰서 오롯이 감각하고 감탄하는 것, 강도와 속도를 높여 관심사에 대한 탐구에 몰입하는 능동적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화 이전, 마을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오랜 교육의 모습이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올 미래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육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영유아교육과정(‘Strengthened Pedagogical Curriculum’)은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0~6세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페다고지 원칙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특히 눈길을 끈 단어는 ‘dannelse’(영어로 ‘formation’, 독일어로 ‘bildung’)로, 흔히 형성 혹은 도야 등으로 번역되는데 더 장기적이고 깊은 배움을 의미합니다. 어린이가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가치와 지식을 녹여내어 배려 깊고 비판적이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며 행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뜻하며, 이는 추구하는 교육목표일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자 형식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교육과정은 영미권과 달리 교육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해 내야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긴 안목으로 교육의 공동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추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추구’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고 충실하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육철학,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차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그 함의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초등전일제의 실험과 운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으로 미래교육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장운숙 초청 강연자께서 강조하신 초등전일제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공감합니다.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공표한 1997년 초·중등교육법에도, 여전히 사립초등학교와 국공립초등학교 고학년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공교육이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견고하게 파인 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사립초등학교 혹은 하교부터 책임지는 태권도학원에서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공부방을 선택하는 중산층 맞벌이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지조차 가질 수 없는 여건에 처한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수 정태춘이 부른 <우리들의 죽음>(1993), 김진한 감독의 독립영화 <햇빛 자르는 아이>(1996)는 맞벌이 부모가 방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간 뒤 발생한 화재나 낙상으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혜영이, 용철이 사건’(1990)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공감대로 이듬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후 3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노래를 틀어 돌봄의 부재를 직면하지 않는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해야 했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흐른 올해도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일 수 없으며, 누군가의 어깨를 바라보며 감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진희, 2025). 우리가 만나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매우 구체적인 담론적-물질적 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Barad(2021: Murris, 2022/2024에서 재인용)의 질문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추상적 신념을 넘어 진정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윤리적 응답-능력과 함께-돌봄(caring-with)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직면하되, 보편적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제도 정비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학교 앞 문구점에 딸린 단칸방에 어머니와 단둘이서 세 들어 살던 우리반 학생이 하교 후에 홀로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두세 시간 후 퇴근길에도 여전히 흙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학생을 비롯하여 제 손길이 더 필요한 몇몇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보고 싶었던 저의 바람은 정해진 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보험 처리, 다른 학급들과의 균형 등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클 것입니다. 임부연 주제 강연자께서 전해주신 검치호랑이 교육과정 우화는 1939년, 당시 메릴랜드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이자 사범대학장이었던 Harold Benjamin이 J. Abner Peddiwel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미국의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전통적 교과중심 교육과 경험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이 격돌하던 시기에 어느 한쪽을 편들으로써 오게 될 불이익과 갈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명과 풍자적 우화 형식으로 비평의 자유를 구했으리라는 추측에,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해 봅니다.

간디와 함께 어린이 교육을 중요시하며 나이탈림(=새로운 교육) 운동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했던 비노바 바베(2007)는 이를 ‘니트야나이탈림’, 즉 ‘늘 새로운 교육’이란 용어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강은 언제나 흐르지만 그 물은 결코 같은 물이 아니듯

교육 역시 나날이 살아내는 삶과 함께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정된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틀에 박힌 교육은 이미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라도 절대로 그러한 틀을 제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날마다 생겨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새로운 조건들에 적응시켜 갈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략)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우리가 쓸데없이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엽말단의 문제들을 고민하느라 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Bhave, 2007: 112-113, 252)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과 돌봄의 요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용어와 개념으로 분석하며 성급하게 비판적인 결론으로 도약하거나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온 우리 사회라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구체적 배치 중에 어떤 부분을 바꾼다면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태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실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문화, 좋은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심리적 부담감이나 실제적 불리함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직장, 돌봄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는 보편적 돌봄 민주주의 등과 얽혀 있는 난제이지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모이게 되는 ‘시민의 포럼’으로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과 삶, 놀이와 배움의 하나임과 관계적 폐다고지

#국가의 책임과 우리의 선택

주제발표자 임부연 선생님이 들려주신 ‘오래된 미래학교에 대한 우화와 전일제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에 대한 숙의’ 역시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은 ‘먹고, 자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린이의 삶과 경험에 밀접하게 녹아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놀이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욕망을 존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놀이~삶 중심의 교육과정은 차이와 반복을 거듭하는 오래된 미래일 것입니다. 또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민첩해진 물고기, 너른 평원을 찾아 떠나버린 말 대신 나타난 영양의 예리한 후각, 폐렴에 걸려 대부분 죽은 호랑이 대신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곰이 부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던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몽둥이로 말 때리기, 불로 호랑이 몰아내기’의 검치호랑이 교육과정(The Saber-Tooth Curriculum)의 매래를 둘러싼 교육학적 시사점에도 교훈이 담겨있습니다.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 또한 다시 살펴보고 협의하여 지킬 것과 바꾸어갈 것,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부족한(time-poor) 부모의 양육 부담, 맞벌이가정의 증가, 빈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해진 이유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은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산업구조, 직장 문화,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지만, 선택지로 종일제 유치원이 포함된 ‘융합형 시간선택제 모형’도 매우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유학시절에는 아이가 엄마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아이의 적응을 위하여 일주일에 2일(화, 목) 혹은 3일(월, 수, 금)을 가는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졸업 후 미국 남부지역 대학에 취업하면서는 민간어린이집과 공립 Pre-K, 귀국하여 더 바쁜 일상을 살게 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종일반, 조금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실천하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했었습니다. 부모의 교육철학, 자녀의 고유한 특성, 현실적인 상황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과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택지로 전일제 유치원이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를 잘 실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매듭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온종일 놀이기반, 유아중심이라는 교육철학에 충실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초강연에 크게 공감합니다. 오전의 교육과 오후의 보육으로 이원화하여 어린이의 ‘존재론적 시간’을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상업적 업체의 교재교구나 학습지,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의 연속으로 오후 시간이 점철된다면 일찍이 ‘학교 없는 사회’를 제안했던 Illich(1970/2009)의 경고처럼 아이들은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즐거운 놀이와 배움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활짝 열려있고, 어른들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아이들의 시간이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강운중 외, 2020: 26)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 영유아교육과정에서 제 눈길을 끈 또 다른 부분은 관계적 페다고지입니다. 개별 영유아의 독자적 성취가 아니라 관계 속의 배움을 중시하는 것, 성취여부의 확인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지에 대한 페다고지적 성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배움은 다른 존재들(다른 어린이들, 교사, 자연현상, 동식물 등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페다고지를 바탕으로 놀이와 배움을 읽어가는 교사의 시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삼삼오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있어, 관계 중심의 교육적 관찰기록 및 평가에 대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의 삶과 삶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특히 관계 속의 놀이와 배움을 조명하고자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편, 연령별 구분이나,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배움 읽기, 그리고 배움 읽기와 평가의 구분 등은 앞으로의 열띤 토론과 숙의를 요청합니다. 영유아교사의 관찰과 기록은 무수한 관계 속에서 놀이하고 배워가는 영유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 교육환경이 필요할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민주사회의 가치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볼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행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선구자들의 꿈과 오래된 미래학교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오늘의 강연들을 종합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요구 들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어갈 필요성과 시민으로서 어린이들의 권리 존중이라는 대전제를 찾게 됩니다. 대전 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구체적 대안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영유아교육자 들은 아동노동 착취를 줄이는 법안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infant school’을 설립 한 Robert Owen, 가난한 어린이들의 위생, 영양, 교육과 보육을 위해 ‘nursery school’에 헌신한 Margaret McMillan,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감각 교구를 개발하고 빈민가에서 ‘casa dei bambini’을 운영한 Maria Montessori, 세 계대전으로 인한 전쟁고아와 이민자 자녀를 위한 ‘Hull House’를 세워 교육과 보육 을 지원한 Jane Adams, 시범운영했던 헤드스타트의 전국 확산을 위해 개인 휴가를 써가며 기여한 수많은 이들 등, 시대마다 처한 어려운 상황의 영유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온 유아교육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정신을 신체에 새기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느리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의 요 구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빠뜨림 없이 촘촘하게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는, 그 래서 더 살기 좋은 민주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아 함께 즐거이 부르는(call/sing) 영유아 교육의 미래를 기다립니다.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가 담은 여러 층위와 색 깔을 상상하며, 행복한 교육을 향해 한발씩 내디뎌 “길게, 느리게, 그리고 촘촘하게” 흐르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려봅니다.

참고문헌

- 강운중, 권도현, 남지원, 노도현, 박효재, 배동미, 심진용, 이석우, 장회정, 정지윤 (2020). **이상한 나라의 학교: 교육의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을 찾아서**. 파주: 글항아리.
- 신형철(2018).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서울: 한겨레출판.
- 이진희(2025).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육-창작하기와 존재론적 함께-되기: 『모기는 착하 다』와의 감응적 마주침.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5(2), 23-50.
- Bhave, V. (2007). **삶으로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자**[*Thoughts on education*]. (김 성오 역). 서울: 씨을평화.
- Illich, I. (2009). **학교 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 (박홍규 역). (원전은 1970 에 출판)
- Moss, P. (2021). **유아교육과 대안적 내러티브**[*Alternative narratives in early childhood: An introduction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서울: 살림터.

(원전은 2018에 출판)

Murris, K. (2024). **교육자로서의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 교육**[*Karen Barad as educator: Agential realism and education*] (이진희, 류미향, 임민정, 장혜진, 정선아, 정혜역 역). 파주: 양서원. (원전은 2022에 출판)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연령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
세종시교육청 혼합연령학급 정책연구

김은정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세종시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운영에 관한 인식과 실천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정책연구 시사점

- 책임연구자: 김은정(교육정책연구소)
- 공동연구자: 오채선(한국교원대학교)
박서현(건국대학교)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의 정의 및 쟁점

- »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이란 나이가 가장 어린 유아와 가장 많은 유아의 차이가 12개월 이상 또는 24개월 이상의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Freedman, 1982), **효과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 » **국내에서는**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교육적 필요보다는 행정적 필요**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함(김은설, 2024; 이진화 외, 2014).



국내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 분석

세종시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2025)

세종 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계(%)
단일연령학급	43(67%)	2(3%)	45(70%)
혼합연령학급	3(5%)	16(25%)	19(30%)
계	46(72%)	18(28%)	64(100%)

(세종시교육청, 2025)

전국 유치원 혼합연령학급 현황(2025)

전국 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계(%)
단일연령학급	582(12%)	1285(28%)	1867(40%)
혼합연령학급	3(0%)	2836(60%)	2839(60%)
계	585(12%)	4121(88%)	4706(100%)

(유치원알리미, 2025)



한국에서는 원아 수가 확보되는 대부분의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단일연령학급을,
원아 수 모집이 어려운 병설유치원은 혼합연령학급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국내의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을 교육적 필요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교육적 필요	- 핀란드 - 독일	- 스웨덴 - 호주	- 덴마크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이탈리아
행정적 필요	- 한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유치원의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원장이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국내외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

혼합연령학급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외 유치원 교육과정 목표

해외 선진국 유치원 교육과정

- 세계시민교육 지향
- 민주시민교육 지향
- 놀이중심 교육과정
- 아동중심 교육과정
- 사회정서교육 강조

➡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정착

국내 개정 누리과정 (2019)

- 인성교육 지향
- 민주시민교육 지향
- 놀이중심 교육과정
- 아동중심 교육과정
- 사회정서교육 강조

➡ 단일연령학급 편성이 기본

➡ 해외 유치원 교육과정과 국내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해외유치원은 혼합연령학급을 국내유치원은 단일연령학급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국내외 유치원 교육과정 비교

국내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2)

- 유아의 발달에 맞는 경험을 교사가 제공
- 교사는 활동의 설계자 및 전달자
- 유아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
- 연령별 369개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

➡ 단일연령학급 편성이 효과적



개정 누리과정(2019)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철학의 명확화
- 교사는 놀이의 촉진자, 협력자, 관찰자
- 유아는 놀이를 주도하는 주체
- 교육과정 대강화(59개의 내용으로 구성)

➡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효과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연령별 활동을 제공하므로 단일연령학급이 효과적,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 중심 교육이므로 혼합연령학급 편성이 효과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세종의 단설 유치원 중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교육 설계를 통해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음 (나성유, 솔빛숲유, 두루유)
- » 이들은 모두 혁신유치원으로 혼합연령학급으로 운영된 지 5년차부터 7년차로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의도적 설계** 하에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검증함



세종시 유치원 혼합연령학급의 SWOT분석 결과 및 강점의 필요충분조건

항목	내용
S	• 개별화교육과 공동체 형성 • 편견이 사라지는 교실 • 경쟁 대신 협력 문화 • 놀이중심교육과정의 꽃 • 세계시민교육 실천 • 사회정서교육 실천 • 유아기 뇌 발달과업에 매우 부합 • 빠른 기관 적응과 자립심 발달 • 소외 없는 아이들 • 또래 학습 촉진 •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 문제해결능력 향상 • 창의력과 상상력 풍부
W	• 수업 준비의 어려움 • 교사의 전문성 요구 • 학부모의 불신 우려
O	• 선진국의 교육목적-방법 일치 • 글로벌 미래인재역량에 부합 • 유초이음교육의 부합
T	• 제도적 여건 미비 •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 • 과거에 발목 잡힌 혼합연령

<제도적 측면>

- 2019 개정 놀이중심교육과정
- 원아 구성 비율 (4:6:8명 구성 비율)
- 적정 학급당 학생수 (12명~18명)
- 적정 교사1인당 학생수 (9~14명)
- 교육청의 지원 (혁신학교 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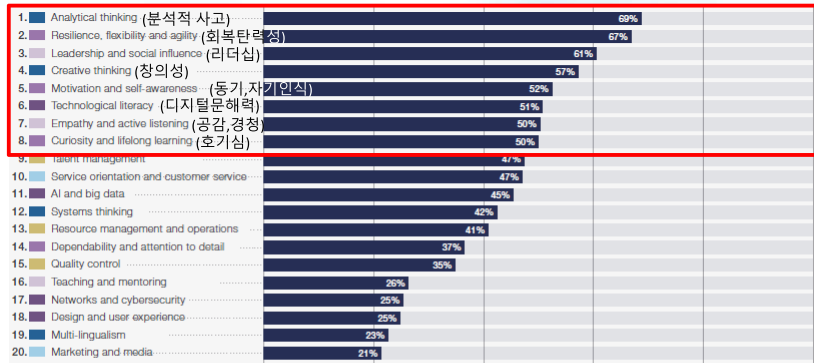
A : 8개 해당 (안정적인 운영)
 B : 11개 해당 (선도적인 모델)
 C : 6개 해당 (기रो에 서있는)

<문화적 측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관리자의 지원적 조직문화
- 학부모의 지지
- 특색교육과정(숲,생태) 운영
- 교사의 자발성
- 놀이 중심 기록화



세계 미래인재 핵심역량(WEF,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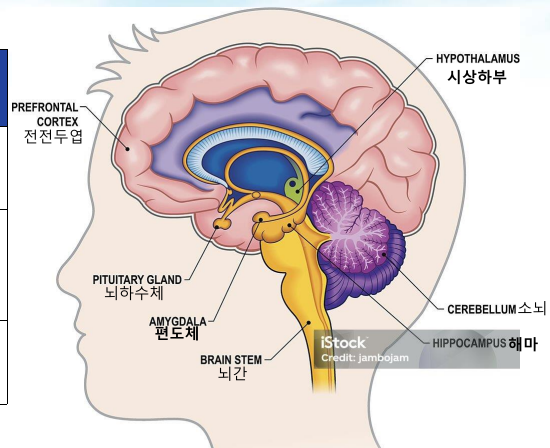
세계 미래인재 핵심역량 중 상위 8위까지 핵심역량은 연구결과 세종시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강점으로 드러난 역량과 매우 관련성이 높음

Share of employers surveyed (%)



뇌과학에 대한 이해

	만0~3세 (영아기)	만4~7세 (유아기)	만7~25 (학령기)
발달과업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사회성 자기조절능력	인지적 학습
뇌발달 영역	변연계 발달(편도체와 해마 발달): 전두엽 발달을 위한 기초공사 시기		전두엽 발달
뇌의 작용	무수한 시냅스 연결	시냅스의 연결 강화	시냅스 가치치기 시작



뇌과학의 유아기 발달과업은 **사회성**과 **자기조절능력**으로 유치원 놀이중심교육과정 및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강점으로 나타난 역량과 매우 관련성이 높음



혼합연령학급이 가지는 **약점과 위협요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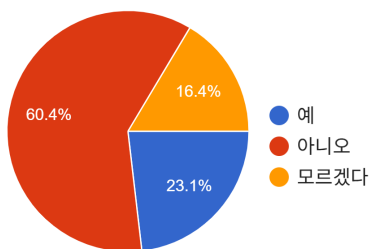
- ▶▶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환경 (교사들의 수업준비의 어려움)
- ▶▶ 학부모의 불신: 혼합연령학급의 필요성과 참여의향 (필요 없음 60%, 참여 의사 없음 55%)
- ▶▶ 과거에 발목 잡힌 혼합연령 (과거에 혼합연령을 힘들게 경험했던 교사들이 현재 혼합연령 가치를 축소)
- ▶▶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 (학부모 중 혼합연령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안내 받은 경험 없음이 절대다수)



설문 결과: 학부모 대상

혼합연령학급 운영의 필요성

Q2. 혼합연령학급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N=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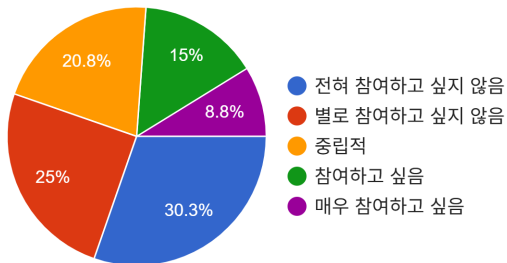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체
단일연령반	43	225	57	325
	13.2%	69.2%	17.5%	100.0%
자녀 학급 유형	43	15	11	69
	62.3%	21.7%	15.9%	100.0%
전체	94	260	71	425
	22.1%	61.2%	16.7%	100.0%



설문 결과: 학부모 대상

혼합연령학급 참여 의향

Q5. 향후 혼합연령학급에 필요한 지원(교사 지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N=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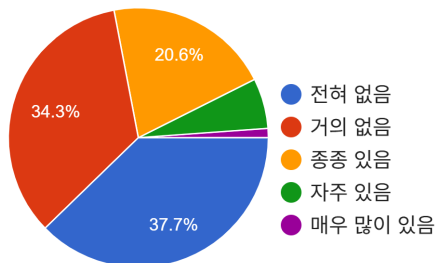
구분	전혀 참여x	별로 참여x	중립적	참여o	매우 참여o	전체
자녀	112	96	72	32	13	325
	34.5%	29.5%	22.2%	9.8%	4.0%	100.0%
학급 유형	5	6	16	25	17	69
	7.2%	8.7%	23.2%	36.2%	24.6%	100.0%



설문 결과: 학부모 대상

혼합연령학급 교육적가치 안내 받은 경험

Q4. 혼합연령학급에 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 (유치원이나 주변 학부모 등으로부터)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N=432)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매우 많음	전체
자녀	143	111	59	12	0	325
	44.0%	34.2%	18.2%	3.7%	0.0%	100.0%
학급 유형	10	22	23	12	2	69
	14.5%	31.9%	33.3%	17.4%	2.9%	100.0%
전체	160	144	89	27	5	425
	37.6%	33.9%	20.9%	6.4%	1.2%	100.0%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 » 전문적 학습공동체 (주1회 모든 교원들이 각자의 유아 중심 놀이 기록물을 함께 공유하고 성찰)
- » 놀이 기록화(아이들의 놀이를 관찰을 기록하여, 전학공에서 의미 있는 배움의 지점들을 공유)
- » 자발성이 보장된 교사 문화(혼합연령학급의 도입도 교육청의 지시가 아닌 교사들의 선택으로 시작)
- » 연대하는 교사(교사들의 연대가 전체 학교 구성원을 공동체화)



혼합연령학급의 필요충분조건

<제도적 측면>

- 2019 개정 놀이중심교육과정
- 원아 구성 비율 (4:6:8명 구성 비율)
- 적정 학급당 학생수 (12명~18명)
- 적정 교사1인당 학생수 (9~14명)
- 교육청의 지원 (혁신학교 지정 등)

A : 8개 해당 (안정적인 운영)

B : 10개 해당 (선도적인 모델)

C : 6개 해당 (기रो에 서있는)

<문화적 측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관리자의 지원적 조직문화
- 학부모의 지지
- 특색교육과정(숲, 생태) 운영
- 교사의 자발성
- 놀이 중심 기록화

세종시 유치원 혼합언령학급 추진 로드맵				
추진단계	단계	전환기 혼합언령	안정기 혼합언령	미래형 혼합언령
	혼합형태	혼합언령학급으로 전환 후 단위학급 중심의 혼합언령	혼합언령학급의 안정기 혼합언령 학급의 정착	혼합언령학급의 확장 혼합언령의 학교공동체화
	추진시기	단기 2025~2026	중기 2027~2029	장기 2030~2032
국가수준 교육과정	법령(시행령)	단일언령학급 중심		유치원 단위 자율 재량권
	비전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공동체에 기여하는 세계시민 양성
	교육목적	인성교육,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 민주주의교육, 세계시민교육, 사회정서교육
	인재상	건강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 책임있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교육내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자기인식, 자기관리, 타인인식, 관계관리, 책임있는 의사결정(SEI), 연대와 기여, 인권·다양성 존중, 사회참여와 책임, 지속 가능한 발전, 예술경험, 의사소통
	교육방법	아동주도의 놀이중심교육 성숙		아동주도의 놀이중심교육 정착
제도·문화	성과지표	(정성지표) 놀이 관찰 기록의 질과 깊이, 유아의 상호작용 수준 향상 정도 기록(예:일화적 사례 수집, 놀이관찰기록 포트폴리오화) (정량지표) 학부모와의 소통지표(예,학부모 만족도 변화 및 공동체 신뢰 정도 조사), 교사의 성장 지표(예:교사 만족도 변화 및 전문성 변화 정도 조사)		
	교사당아동수	1:18	1:12~1:14	1:9
	학급당학생수	18명	12명~14명	18명
	원아비율	4:6(엄격)	2:4:6(유연)	6:6:6(유연)
	교사체제	1학급 1담임제/1학급 2담임제(시범)	1학급 1담임제/1학급 2담임제(시범)	1학급 2담임제 정착
	인센티브	(지원사업형태) 시범학교,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학교인센티브) 연구비 지원	-	
네트워크	교사전문성	전학공 도입, 놀이관찰 기록화 도입 교원연수 프로그램/컨설팅	전학공 성숙기, 놀이관찰 기록화 정착, 교원연수 프로그램/컨설팅	전학공 내실화, 놀이관찰 기록화 내실화, 교원연수 프로그램/컨설팅
	유초연계	유초 교사 간 교육철학 공유(시범)	유초 교사 간 교육철학 공유(확대)	유초 교사 간 교육철학 공유(전체)
	학부모연계	학부모 대상 동영상 홍보, 사례 공유(인식개선), 워크숍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참여	학부모의 공동체 구성원화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활용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활용	마을 교육 공동체화(공동프로젝트, 공간 공유등)

생각해 볼 만한 점

»

과연 모든 유치원에 혼합언령학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유치원이 혼합언령이더라도 초등부터 다시 단일언령이 되는데 그 교육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까?

»

혼합언령학급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가장 어려운 환경은 병설유치원의 혼합언령일까,
단설유치원의 단일언령일까, 아니면 학습 중심의 어린이집일까?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존재감각의 과정으로서 '만들기':
팀 잉골드의 '만들기(making)'개념에 대한
교육적 전유

서정은

(서울대학교 박사)

존재감각의 과정으로서 ‘만들기’ : 팀 잉골드의 ‘만들기(making)’ 개념에 대한 교육적 전유

서정은 | 서울대학교 강사
art4life@snu.ac.kr

1. 문제의식

- **보통의 사람들에게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타고난 재능에 관계 없이, 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활동과 정 자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내가 사랑하는 미술가의 작품을 천천히 따라 그려가는 것, 흙을 가지고 조금 서툴지만 이렇게 저렇게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보는 것, 프로 무용수의 몸짓만큼은 아니더라도 우아하고 때로는 절도 있는 춤 동작을 연습하며 몸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 뻗뻗한 손가락을 달래 가며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건반을 두드리는 적당한 힘을 찾아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 하얀 화선지 앞에서 숨을 고르고 붓 털 끝의 압력과 종이에 번지는 먹의 퍼짐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들어 가는 것 ...”

1. 문제의식

-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대 받는 예술가와 달리, 보통 사람들은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유일한 목적 및 동기는 아닐 수 있다.
 - 새로움, 깊이, 창의성, 뛰어남, 작품성과 같은 것들에 닿지 않더라도 모사, 습작, 훈련, 연습, 시도, 놀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교육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그것은 왜인가?
- 이 활동들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교육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 cf. 재미, 치유(힐링) ...

1. 문제의식

- 예술 활동(making)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흙을 만지기 이전과 이후, 현을 그어 나무 울림통의 소리를 만들어 내보기 이전과 이후에 겪는 차이
 -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 및 물질을 몸-감각으로 만나는 것의 의미?)
 - 측정될 수 없고 형용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미세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예술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존의 언어와 접근들

• ‘창작’ 중심의 언어들

새로움, 참신함, 혁신

아이디어, 사고력, 상상력

사고, 마음의 확장

의미, 해석, 자기 이해

표현력, 예술언어

작품, 결과물, 이미지적 재현

▶ 예술: 일상과 구분되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형식과 언어를 갖는 하나의 영역/제도 장르(고유 형식)에 따라 구분되며, 작품 생산을 핵심 과업으로 함

→ 근대적 예술관

▶ 예술은 인지적인 것, 인성적인 것, 언어적인 것에 기여하는 원천으로 이해되어 옴

→ 개인(사고&마음)의 형성

▶ 예술교육의 목적: 전인적 인간 형성, 인성 및 창의성 계발, 학업성취도 기여, 시민교육 (예술에 대한 앎, 예술언어 습득)

→ 예술-교육 간 수단-목적 관계

2. 예술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존의 언어와 접근들

• ‘창작’ 중심의 언어들로 포괄되지 못하는 예술 활동의 측면들 → ‘making’ 개념을 통해 재검토

반복, 모방, 기술

신체(감각, 운동) 능력

몸-감각, 물질, 느낌

사건의 순간(즉흥), 존재의 열림

수행, 하는 것 자체

과정, 실천

▶ 예술: 행위와 수행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형태발생적 과정 신체가 겪는 변화, 역동, 생성적 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

→ 탈근대적 예술관

▶ 예술은 우리(존재)의 물질적, 감각적, 운동적인 차원을 열어내는 데 기여하는 원천

→ 몸의 변형

▶ 예술교육의 목적: 세계 내 존재양식(물질과 관계맺는 방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 (몸, 느낌, 정서, 감응, 비언어적/물질적 소통방식)

→ 예술이 곧 교육이 됨 (존재방식에의 개입)

2. 예술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존의 언어와 접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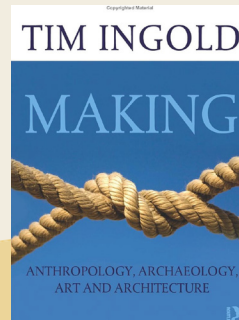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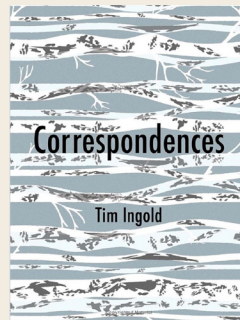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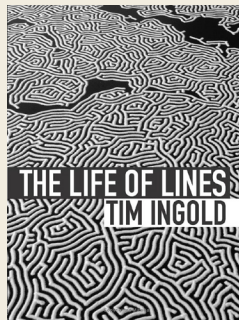
- 교육 논의에서의 ‘making’ 개념에 대한 제한적 이해
 - 창작 개념에 포함되는 과도기적이고 기술적인 활동
 - 아이디어나 관념을 물리적 실재로 구현/집행/시행하는 활동
- 근대적 세계 이해로서의 ‘질료형상적 관점(hylomorphism)’을 전제함
 - 능동적이고 자유의지적인 인간 주체 vs 인간에 의해 형태 부여를 기다리는 불활성의 세계(객체)
 - 물질, 질료보다 인간(제작자)의 마음/사고/정신에 우선성 부여
 - 행위의 시작점에 관념(의도)을, 완결점에 결과물(작품)을 둠
 - ‘결과물’로부터 그 기원인 행위자를 역추적해 그 의도나 목적을 연결함으로써, 미술이라는 활동을 ‘작품/작가’ 중심으로 이해하게 함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 목적
 - 예술 활동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예술 활동 중에 우리의 몸-감각은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교육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 결과물의 차원으로 드러나지 않고 언어화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들(몸에 남겨진 흔적들)을 교육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
- 연구의 방법(철학적 방법, 개념 고찰)
 -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linealogy)’에 기반한 ‘making(만들기)’ 개념 탐색
 - 예술 활동의 과정적이고 몸-감각(물질)적인 측면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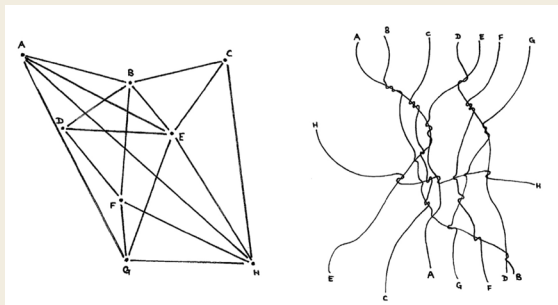
• 팀 잉골드(Tim Ingold, 1948~)

- 영국의 인류학자. ‘선학(linealogy)’이라는 독자적 학문 분야 확립하며 철학, 사회심리학, 예술학 등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침
- 화이트헤드, 베르그송, 들뢰즈와 과타리(과정 철학)의 계보를 잇는 신유물론 계열의 사상가



• 4.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

- 물질적 얽힘으로서의 세계 이해: 엮이고 풀어짐의 메쉬워크(meshwork)
 - 삶(세계)은 ‘살아있는 것(being alive)’. 모든 존재자는 물질로서 유동하고 생성하는 운동 상태에 있음
 - “모든 존재는 각각의 삶이자 그 차취로서의 선들로 이루어진 메쉬워크(Ingold, 2007: 81).”
 - 인간 역시 ‘하나의 선(a line)’으로 자리함



점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좌)와 매듭으로 엮인 선들로 이루어진 메쉬워크(우)(Ingold, 2007: 81)

4.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

- 메쉬워크(meshwork)와 같은 ‘관계적 세계 이해’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 메쉬워크에서 선은 ‘합일되는(joined up)’ 것이 아니라, ‘합류하며(joined with)’ 연결되어 간다. 긴장과 완성이 번갈아 가며 조화를 이루는 합창 음악의 목소리처럼, 메쉬워크의 뒤엉킨 선들은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외형적인 연속성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내적인 느낌(inner feel)을 갖게 된다. 나는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교감(sympathy)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 교감은 ‘바라보기(looking at)’가 아니라 ‘함께 살기(living with)’이며, 사물의 간극(interstice)에서 작동하는 느낌-앎(feeling-knowing)의 한 형태이다. 스튜어트 브루크는 이를 ‘사물이 서로를 조형할 때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Ingold, 2016: 12).

- ‘함께 살기’로서의 관계 방식

- 서로에 대한 어떤 개입과 침투가 불가피한 종류의 ‘간섭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냄
- 특정 존재에 대해 ‘내적 느낌’을 갖게 되는 것: 미시적이고 언어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를 마주하기 이전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간섭(정서적 관여)을 포함
- 묶였다 풀려진 매듭에 구부러진 흔적들이 남듯,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간/동물/사물)를 마주치는 과정에서 마음을 쓰듯, 선과 선의 교감은 그것을 한 번 겪고 나면 이전 상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존재론적 특성을 함의

4.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

- ‘함께 살기’로서의 관계 방식

- 살아있는 선으로서의 세계에서 한 번 합류를 겪고 난 후 선들에 모종의 자취들이 남겨지는 것, 그로 인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현상
- 존재가 각각의 테두리나 영역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접합 또는 분리하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X)
- 서로 간에 모종의 ‘느낌’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고, 이후 분리의 순간에 그것들은 내부로부터 무언가를 내주어야만 하는 어떤 ‘상실감’을 동반하게 되는 것
- 특정 순간에 함께 모이되,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어떤 흔적, “감응의 기억”(Ingold, 2016: 13)을 지닌 채,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

→ 형태생성적(form-generating) 혹은 형태발생적(morphogenetic) 과정

- 발달적 관점에 따라 A에서 B의 단계로 단번에 전환이 이루어져 그것이 지속되는 모양과 달리, 언제나 계속적인 생성의 과정에 놓여있는, 운동 상태로서의 물질적 세계를 가정한 표현

4.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

- 조응(correspondence)의 관계 방식

- ‘서신 교환’, 즉 대화에서 단어나 글자들을 주고받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
- 존재자나 사물들이 함께 흘러가며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서로에게 응하는 관계 방식(cf. 상호작용)

- ‘조응’이라는 관계 방식을 우리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 특정한 연결망 속에서 서로가 느끼고 움직이는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각하는 것
- 우리가 어떤 존재와 (조응의 방식으로) 마주친다는 것은, 그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자 함께 그것의 삶을 따라가는 것
- 이는 단지 그것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과 다르며, 그를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이용/활용하는 것과도 다름
- 오히려 그것은 같이 걷는 동반자에게 괜찮은지 말 걸고, 그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반응적 관여)을 포함하는 것이자, 모종의 개입과 침투를 포함하는 것
- (내가 또는 아이가 나무/흙/악기와 조응의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다면? 교사가 아이들과 조응의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다면?)

4. 팀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

-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에 따른 세계 이해

- 모든 존재 각각의 삶이자 자취로서의 선들이 엮이고 풀어지기를 계속하며 서로를 조건화 하는 것 속에서 형태가 발생되어 가는 움직임이자 운동으로서의 세계
- 멈춰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한 것들을 차후에 세계로 투영시키거나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는 언제나 균열, 뒤틀림이 동반됨

- 잉골드의 ‘생명선의 존재론’에 따른 인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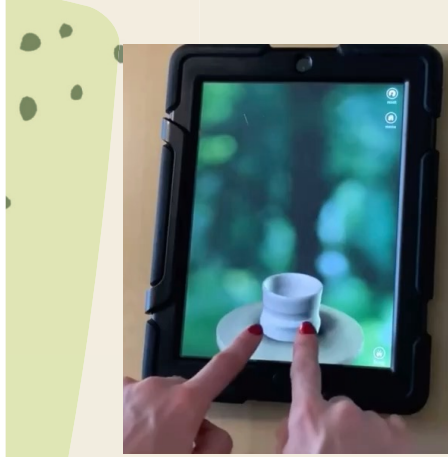
-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함께 변화하고 흔들리는 조건 속에 있는 존재
- 능동의 의지적 주어이기보다, 수동의 경험적 행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하나의 존재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 하기(doing) → 겪기(undergoing)
 - 자유의지적 주체성(agency) → 주어진 조건 안에서 발견하는 행위가능성(agencying)
 - 의도성(intentionality) → 주의성(attentionality)

5. ‘생명선의 존재론’에 기반한 ‘만들기(making)’ 개념의 이해

	근대적 의미의 ‘만들기’ 개념	팀 잉골드에 따른 ‘만들기’ 개념
활동의 목적	인공물(작품, 결과물)의 완성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활동의 개시 방식	주체가 세계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됨	활동 안으로 들어가 몸-감각이 세계의 안내에 따르는 것에서 시작됨
활동의 성격	미리 고안된 형태의 기술적 구현	살아있는 물질(세계)과 몸-감각이 섞여드는 활동 안에서 새로운 행위가능성이 발견됨
활동의 결과	인공품의 완성	사물/세계 및 우리 자신의(새로움의) 존재를 감각하기
활동의 특징	시작(의도)과 끝(결과)이 명확함 시작-끝 양자 간 비교 속에서 활동의 의미가 도출됨	계속 진행 중인 과정적 활동 직접 그 일 안으로 들어가보는 것 속에서 의미가 도출됨

5. ‘생명선의 존재론’에 기반한 ‘만들기(making)’ 개념의 이해

-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창작, 제작)에 대한 근대적 이해 방식을 벗어난 ‘만들기’ 개념의 정식화
 - ‘만드는 행위’는 인간이 주도하여 원재료에 형상/아이디어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 살아있는 물질(세계)과 몸-감각이 감응하며 서로를 휘감는 얽여짐 안에서 서로를 조형(변형)해가는 과정이 됨
 -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작품)’는 일종의 잉여물 같은 것이 됨)



개념적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어플리케이션 Pottery)

- 머릿속 디자인(의도, 계획) → 흙이라는 재료에 부과(실행) → 그릇 완성
- 기술적인 통제, 조작, 숙련을 요함



물질적 도자기 만들기 (실제 흙과 만나는 과정)

- 물레를 돌리며 흙을 만짐 → 흙과 물레 힘의 저항을 느낌 → 물질과 얽힘(함께 변함)
 흙상태, 밀도, 물레의 강도, 패달을 밟는 힘, 다리의 근육, 온도, 습도 등
- 물질적 에너지들의 교감, 서로에게 흔적 남김, 서서히 출현&바뀌어가는 형태

6. 만들기 과정 속 행위 양식의 변화

- (1) 만들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적 행위에 노출됨으로써 ‘하기(doing)’가 아니라 ‘겪기(undergoing)’를 연습함
 - 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에 따라가며 ‘겪기’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작업을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우리의 존재 조건을 환기시킴

‘하기(doing)’의 방식	‘겪기(undergoing)’의 방식
• 행위의 기원을 행위자(인간)의 결단에 둠 • ‘하기’ 자체를 ‘집행’으로 축소시킴 • ‘변수’에 폐쇄적	•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그 실천에 들어가기로 요청함 • 세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요청들에 귀 기울이고, 그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가능성을 찾아감 • ‘변수’에 개방적, ‘능동적으로 겪기’

6. 만들기 과정 속 행위 양식의 변화

- (2) 만들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의지적 주체성(agency)을 앞세워 세계를 덧씌우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발견/발굴하는 감각을 깨우게 됨
 -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고 표현하는 활동 X)
 - 우리의 몸-감각이 흐름과 상황에 이끌리듯 따라가는 활동
 - 물질과 감응적으로 뒤얹히며 물질에 조응하는 존재-감각적 활동: 물질적 사유
- 특정 행위의 과정들에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점들, 즉 일단 행위 안으로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으며(Ingold, 2016), 그 안에 거주하는 상태에서에서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다음으로 가는 방향성의 열림을 발견하게 ehla

6. 만들기 과정 속 행위 양식의 변화

- (3) 만들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지향을 내세우기보다, 우리를 넘어서 있는 것들에 관심을 돌려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반응적이 되는 감각을 몸에 익힘
 - “주위를 살피며 사물의 움직임과 공명하는 것, 즉 그 사물의 흐름에 함께 따라가는 것(go along with)”(Ingold, 2016: 19)
 - 운동으로서의 흐름을 살피고 기다리며, 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내 몸이 맞춰지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주의성(attentionality)
 - 주의성(attentionality)의 어원적 개념으로서 프랑스어 *attendre* [‘에타게] 기다리다, 보살피다
 - 그것들을 돌보고(looking after)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이 하는 일을 따른다는 의미로서 ‘배려의 실천(practice of care)’의 의미를 포함함

7. 결론

- 잉골드의 ‘만들기’ 개념에 토대하면, 예술 활동 중에 우리의 몸-감각은
- (1) 관계적 행위 속에서 ‘꺾기’를 연습하고, (2) 물질에 감응적으로 뒤엎히며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발견 하려고 (3) 우리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서의 세계/사물을 살피고 기다리며 그에 응하는 방식으로 내 몸을 맞추는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됨
- 이러한 경험의 차원들은 단적인 변화와 결과물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 우리의 몸에 모종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양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 에서, 우리의 존재-감각을 섬세화시키는(존재 변형의 가능성을 여는) ‘교육적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줌

감사합니다 ☺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공동-생성의 교실 아카이브

최 고 은

(부산대학교 박사)

2025 한국영유아교육과정 연차학술대회_3부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운동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공동-생성의 유아교실 아카이브

부산대학교 박사 최고은

탐구의 목록

기록이 불러일으키는 탐구

행위성으로 다시 만나는 기록

공동-생성의 유아교실 아카이브

그리고...그리고...그리고...

기록이 불러일으키는 탐구

탐구를 여는 기록

(나의 저널, '후와 엄마가 함께하는 기록: 후의 도전', 2022. 06. 10)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이가 미끄럼틀 앞에 선다.

이내 양손으로 미끄럼틀을 잡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누르며, 천천히 미끄럼틀을 오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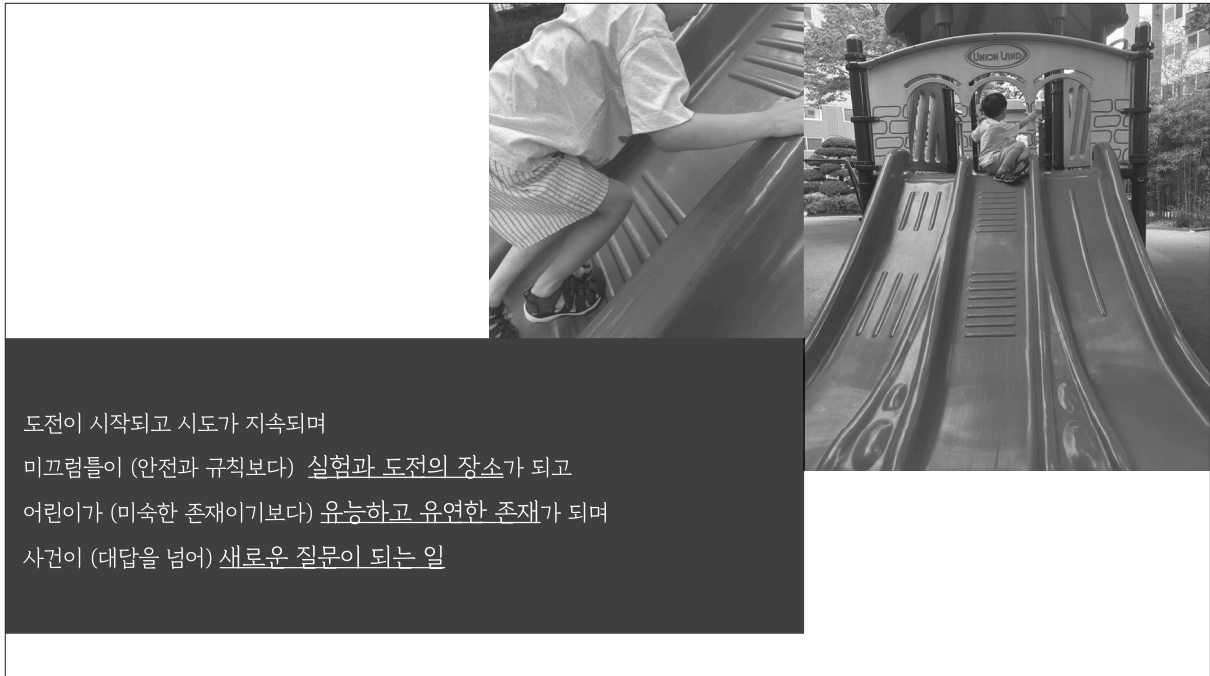
그러나 다시 아래로 미끄러진다. 잠시 숨을 고른 아이는 이번에는 뒤로 물러선다.

속도를 내어 달리고, 다시 미끄러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내던지고, 맨발이 되어 미끄럼틀을 힘껏 밀어낸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을 얼마쯤 오갔을까? 아이는 우연히 미끄럼틀에 숨겨진 비밀 하나를 찾아낸다.

천천히 다시 발을 내딛어 한 칸씩 올라서고, 마침내 미끄럼틀 위에 올라선다.





어린이 존재를 **발견** 하기 위한 도구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는 증거

반영과 **재현** 가능한 수단으로서 알려져 온 **기록**

사건에 이미 **‘개입’** 된 채

존재를 **‘공동으로 생성’** 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중요한 **물질**

탐구의 초점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은 어떠한가

행위성으로 다시 만나는 기록

신유물론

(New Materi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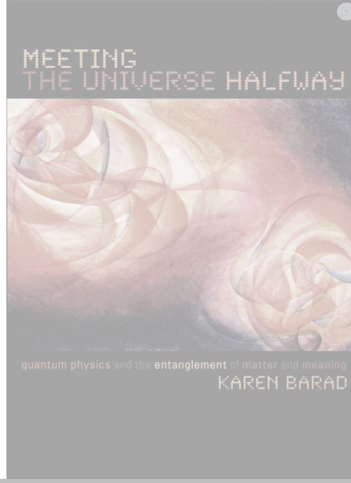
행위성
물질성의 긍정
자연-인간
존재
관계성
응답
물질
현상
이분법
횡단
책임
역동성
관제
개체-주관
엄밀함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카렌 바라드
(Karen Barad, 1956-)

이미 얽힌
분리불가능
세계의(of)
현상
간-행(intra-action)
물질-담론
물질화(mattering)
회절
응답-능력(response-ability)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다” (Barad, 2007: 353)

행위성
Agency

행위의 수립(enactment)

“행위성은 누가 혹은 무엇이 다양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행위성은 ‘유지’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힘**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가능성’의 문제로 ‘수립(enactment)’되는 것이다.”(Dolphijn & van der Tuin. 2012/ 2021: 74)

관계의
역동으로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응답 가능성을
열어가는

행위성으로 다시 여는 기록

Archive

기억과 해체
생성과 가능성
증거와 재현



아카이브를 통해 유아교육에서 기록 다시 읽기

‘생산’을 넘어 **‘생성’**으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과정과 함께 일어나는 ‘생성’

‘무엇을 얼마나’에서 **‘왜 어떠한 맥락’**으로

기록에서 불러오는 고민과 질문으로 (재)형성되는 ‘두터운 관계’

‘책임’에서 **‘응답’**으로

기록과 더불어 의미가 생성되는 순간에 개입하며 중요해지는 ‘응답’

연구방법으로서의 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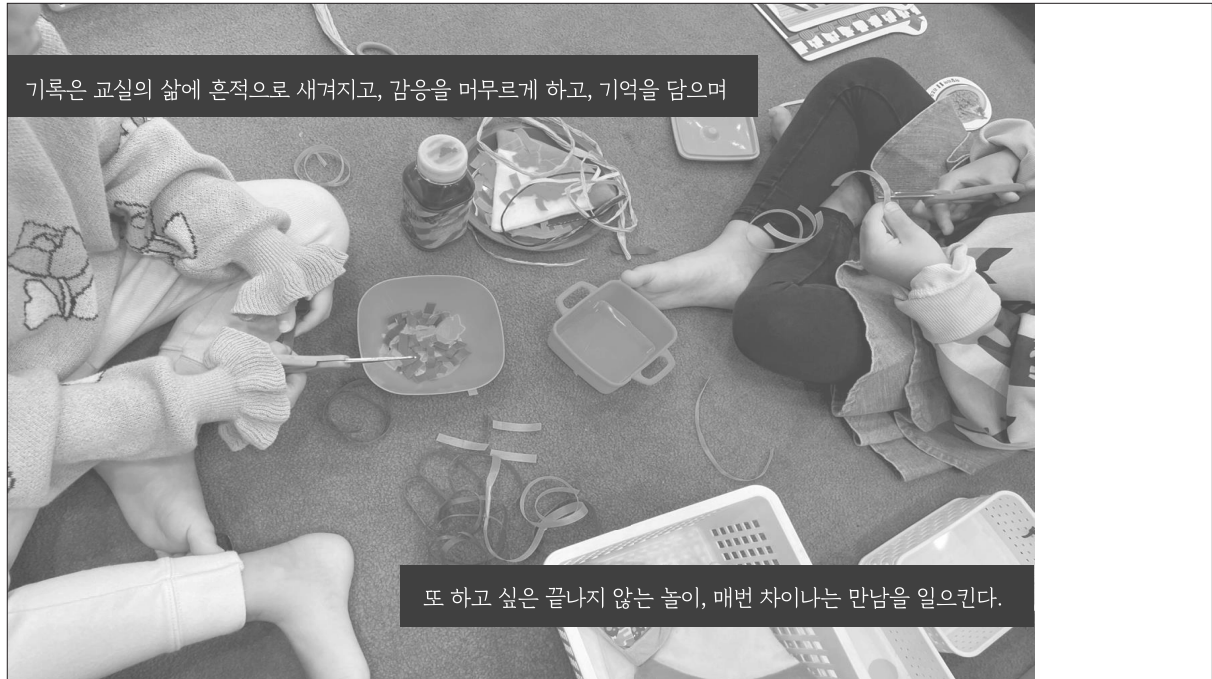
회절은 물질화하는 차이들의 얹혀 있는 본성을 존중하며
경계들의 반복적인 재형성에 주목하며 서로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Barad, 2007)

기록 Agency Archive

행위성과 아카이브를 읽으며 서로를 통해 일으켜진 새로운 아이디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을 수동적인 사물로 논의해 온 오래된 방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기록을 다르게 감각하게 한다.
이제 탐구는 관계적이고 생성적인 만남에 개방된 채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미결정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공동-생성의 유아교실 아카이브

반짝이고, 붙잡고, 문제가 되고, 마주하고, 질문하고, 다가서고, 남겨지고,
갈등을 만들고, 지속하고, 변화하고, 실험하고, 접속하고, 회상하고, 오려내고,
기회를 열고, 경계짓고, 추적하고, 바꾸고, 열리고, 시작하고, 활기를 불어넣고, 자극하고,
협력하고, 변형하고, 거닐고, 쌓고, 설명하고, 멈추고, 시끄럽게 하고, 불러내고, 펼치고,
일으키고, 차이를 만들고, 다가서고,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질문하고, 창조하고,
제안하고, 초대하고, 흘러가고, 재촉하고, 끌어당기고, 분주하게 하고, 빛어내고, 풀고,
새롭게 하고, 열어주고, 간섭하고, 대신하고, 느리게 하고, 희망하고, 무력화하고,
다시-돌아가고, 접속하고, 개입하고, 재배치하고, 어울리고, 연대하고, 조절하고,
허용하고, 신호를 주고, 펼쳐주고, 의논하고, 긍정하고, 안무하고, 상상하고, 물꼬를 트고,
모이고, 속삭이고, 기다리고, 환대하고, 넘나들고, 찾고, 유혹하고, 연결하고, 휘말리고, 대화하고



기록은 우정을 일으키고, 놀이를 끌어오고, 유아를 또 다른 세계로 초대하며



실천과 연대를 만들고, 변형을 긍정하면서 지금-여기를 넘어서 유아의 세계를 열어간다.

본 탐구에서 기록은 흐름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휘말리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모으고 흩뜨리고, 재촉하고 느슨하게 되어가는 가운데 개입하는 관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로써 놀이의 시작과 변형, 배움의 지속과 확장의 가능성은 일어나고
교실에 일으켜진 활기와 리듬으로 교육과정은 변주되며
미결정된 세계의 재구성과 함께 언제나 창조되는 유아의 세계는 열리고 있었다.

“기록은 이미 엮힌 채 지금-여기를 넘어서 유아 교실을 공동-생성한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

다시 탐구로 나아가며

탐구자는 유아교육 현장에 기록의 행위성을 탐구하며
교실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탐구의 목적을 위해 현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온 과정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교실 곳곳을 누비며 만난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과 함께

탐구자는 유아교육 현장과 더욱 깊이 두텁게 얹히며

탐구의 무거운 책임과 마주할 수 있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공동-생성의 유아교실 아카이브

기록과 얽힌 관계로 유아교육 현장과 다시 만나기
함께 발생하는 질문을 존중하며 응답하기

“ 우리는 우리가 얽혀 있는 망에서 언제나 이미 책임이 있다 ”

(Barad, 2007: 384)

출처

- 1, 2, 4, 5, 19, 21, 23, 24, 26, 27) 이미지-최고은(2025).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이미지- <https://m.site.naver.com/1PHgz>
- 7) 박보영, 정선아 (2021). 영유아교육에서 관찰과 기록의 차이 탐구: 영유아 관찰, 레지오에밀리아교육의 기록, 개정 누리과정 놀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1(2), 71-105.
이미지- <https://m.site.naver.com/1PHgG>
- 10) 문규민(2022).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경기: 두 번째 테제.
박준영 (2023).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서울: 그린비.
- 11)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이미지- 신유물론, 물질의 도래 V - 카렌 바라드의신유물론- 말과활아카데미 <https://m.site.naver.com/1PIld>
- 12) Dolphijn, R., van der Tuin, I. (2021). *신유물론: 인터뷰와 지도제작*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박준영 역). 서울: 교육서가. (원본발간일2012년).
염수정 (2024). '교사 행위주체성'에서 '교사-너머-행위성'으로. *교육과정연구*, 42(1), 27-51.
- 13) 설문원 (2025). 은유로 읽는 기록관리 담론의 역사. *기록학연구*, 84, 133-177.
이미지- 현대미술설명서:아카이브가 뭐길래•BE(ATTITUDE) <https://magazine.beattitude.kr/essay/essay-jaeyong-guideline6/>
- 14) 최고은, 정혜영 (2024). 유아교육에서 기록 다시 읽기: 아카이브 담론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9(4), 121-151.
- 15) Barad, K. (2014). Diffracting Diffraction: Cutting Together-Apart. *Parallax*, 20(3), 168-187.
박신현(2022). *캐런바라드의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 관계와 얽힘으로 만들어지는 몸*. 몸문화연구소 자음(2022). 신유물론 (pp. 159-193). 서울: 펄로스픽.
이미지- <https://www.Dunkirk-tourism.com/things-to-do/the-great-outdoors/seaside-resorts/>
- 16) 최고은(2025). 유아교육 현장에서 기록의 행위성에 관한 후기질적탐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지- 건축가와 함께하는 아카이브 산책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ject/view.do?proSeq=88>
- 18) 이미지- <https://m.site.naver.com/1Plip>
- 20) 이미지- <https://m.site.naver.com/1Pliv>
- 22) 이미지- <https://m.site.naver.com/1Pliy>

참가확인증

성 명:

소 속:

위 사람은 한국영유아교육과정에서 주관하는
2025년 연차학술대회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 제 : 유보통합과 오래된 미래학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존재인식론적 읽기와 미래 학교에 대한 숙의

일 시 : 2025년 9월 6일 토요일 09시-15시

장 소 : 청주 OSCO 중회의실 203-204호

/ 온라인 YouTube

2025년 9월 6일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